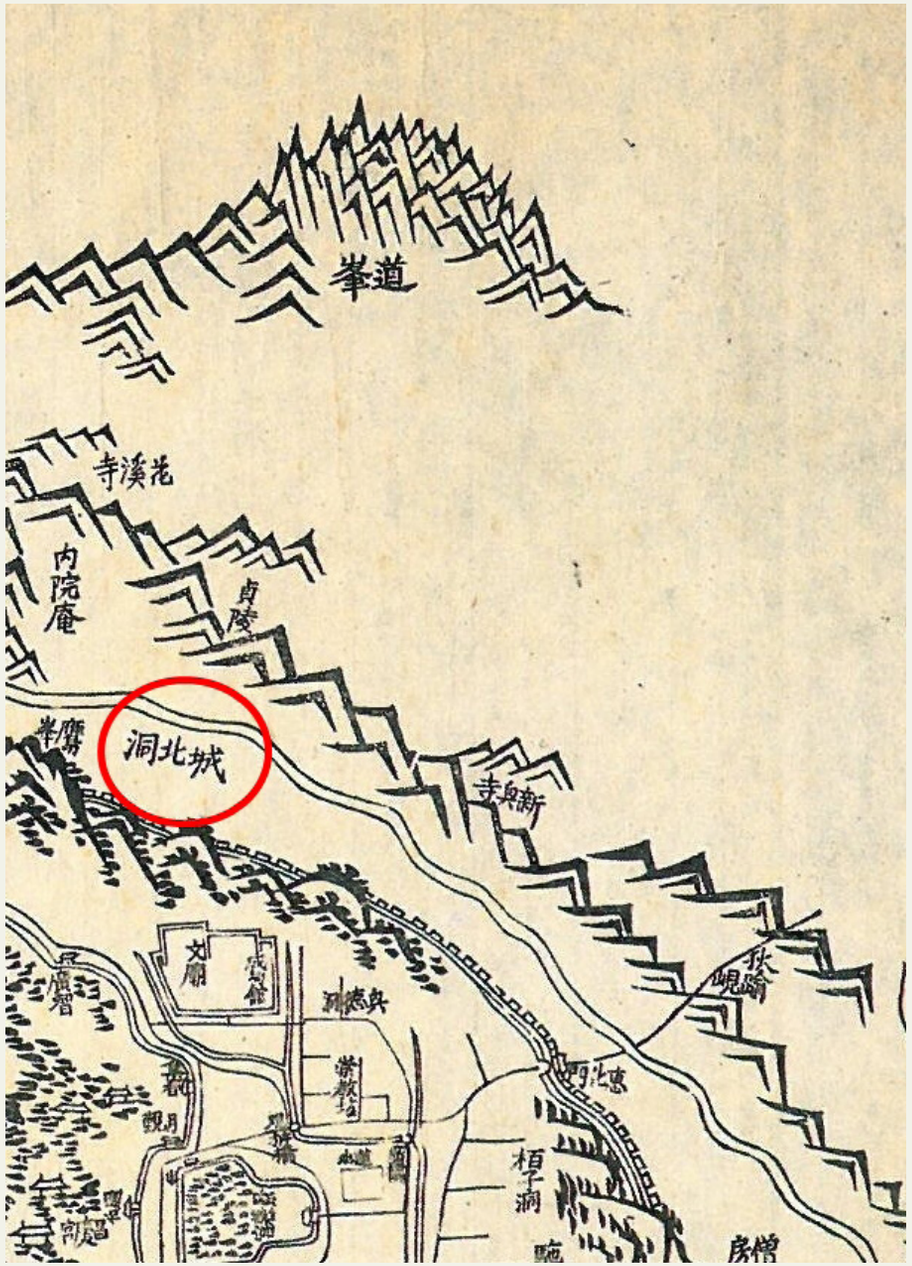
# 성북 城北에서 만나는

## 자연과 역사와 사람들

# 내지표지

# 목 차

사연이 깃든 성북구의
오랜 역사 이야기




# 고지도가 담고 있는 성북 (조선시대)

성북구의 '성북'은 조선시대 한양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성곽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성북'이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40년에 만들어진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혜화문 밖을 성북이라고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혜화문은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불렸으며,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향하는 동북 교통로의 출발점이었다. 이 길을 따라 많은 물자들이 오갔는데 한양에서는 생활용품들이 주로 나갔고 함경도에서는 각종 어물들이 들어왔다.

앞서 나온 '되너미 고개'라는 지명은 '되놈'들이 넘어오던 고개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실제로 조선 초에는 여진 사신들이 이 길을 따라 한양으로 왔다. 동북방면에서 한양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라는 것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조선 중엽에는 이곳에 도성을 지키는 군대인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을 설치하여 주둔하게 하고, 민간인 한 무리를 보내 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했다. 이들이 바로 성북동의 첫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새 땅"은 한 마디로 황량한 곳이었다.

성북구 지역은 북한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북한산의 남쪽 기슭은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진 곳이어서 조선의 국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을 나갈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모래땅이 많아 논농사를 짓기도 힘들어 사람들은 도망쳐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북의 산골과 계곡은 도성에서 제일 가까운 사냥터이자 쉼터였다. 궁궐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성만 넘으면 바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선의 왕자들도 이곳에 별장을 만들어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이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북둔(北屯)이 있던 곳은 복숭아나무가 많아 늦봄에는 행락객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 식민지 수도 경성의 변두리 (일제강점기)



조선시대까지 성의 바깥에 있던 성북은 1936년 경성부 안으로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초창기만 해도 성북지역은 고양시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점차 지금의 서울시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를 거치면서 성북지역은 점차 큰 변화를 맞이한다.

성북이 경성부에 속하지 않았던 1914년부터 1929년 사이, 성북에는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묘지를 만들어야만 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상여를 꾸며 관을 넣고 직접 묘지까지 운반하는 장례 절차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공동묘지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

1936년 일제는 경성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며, 경성을 확대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에 입주희망자가 없자 황무지로 남게 될까 염려했다. 그래서 시가지에 살면 가난해지고, 교외지역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소설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펼쳤으며, '관'이 직접 개입하여 이 지역의 토지 매매를 활성화시켰다. 그 영향으로 전통한옥도 아니고 서양식 주택도 아닌 요상한 모양의 '조선집'들이 마치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듯 만들어졌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 집들에서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도 사람 살기 편한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30년 중반 이후 이 지역에는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 상업학교, 일본인 중학교들이 설립되었다. 현재 성북구에는 대학교들이 유난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세워진 학교들이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전차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의 대중교통은 전차와 시내버스 간의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였으며, 5전 균일가라는 정책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이었다. 또한 1941년에는 전차가 개통되어 지금의 성신여대역 앞에 있는 태극당 앞에 전차 종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은 조선인들의 삶을 근대적으로 만든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관문이던 동소문을 방치하다가, 1928년에는 너무 낡아버렸다는 이유로 철거해 버렸다. 당시 남겨둔 일부분 역시 돈암동에 버스와 전차 종점을 만드는 노선 연장 작업을 하면서 모두 헐어버렸다.

일제 강점기의 또 다른 현실은 많은 영세 도시민(都市民)이 살고 있던 토막촌에서도 찾을 수 있다. 토막촌은 각종 재난으로 가진 것을 잃은 사람들이 시내와 교외 근방의 제방, 강바닥, 다리 밑에 초라한 움막을 지어놓고 모여 살던 부락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일제는 교외지역이던 성북에 토막민 수용지(收用地)를 설정하여 토막민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1942년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태평양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제가 토막민들을 북해도 등지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성북은 한쪽에서는 한적한 산골의 전원생활을 즐기거나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여 편리한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영세민들이 움막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성북은 이렇듯 사람들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이었다.

# 성북동 비둘기 (해방 이후)



성북구는 해방 이후인 1949년에 비로소 오늘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에 속했던 석관리, 장위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가 성북구의 첫 동네가 되었다. 이후 1973년에 미아리 고개 북쪽의 동네들을 도봉구에 속하게 하고, 1975년에는 다시 석관동, 종암동, 안암동 일부를 동대문구에, 정릉동, 하월곡동의 일부를 도봉구에 주고, 동대문구에서 보문동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한국전쟁 때 미아리 고개는 북한군이 넘어와 공격하고 포로를 압송해가는 길이 되었다.

미아리 눈물 고개
울고 넘던 그 고개에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 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 절며
울고 넘던 그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박창오 작곡〈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의 작사가 박창오씨는 실제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 피난을 갈 때 어린 딸이 죽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근방의 땅을 손으로 파서 묻어주고 갔다고 한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딸을 묻었던 곳을 애타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때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에 담았다고 한다.

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 성북구의 인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 인구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일단 전쟁 동안 이 지역의 인구는 확실하게 집계될 수 없었다. 사람들이 파괴된 마을 주변에 움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에게 집을 지어 살도록 하고, 이들을 포함시켜 새롭게 인구를 집계하였다. 사회가 안정되고 서울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도 이 지역 인구증가의 원인이었다. 특히 성북구는 당시만 해도 서울의 가장자리였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제 강점기에 여러 대학교들이 자리 잡은 것 또한 인구증가의 큰 요인이었다. 급증한 인구 때문에 1973년에는 성북구로부터 도봉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中, 1966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주거지도 늘어나게 되었다. 성북구에는 돌산을 뜻하는 '암(岩)'자가 들어간 동네가 많다.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돌들을 깎아 내야 했고, 높은 산등성이마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던 삶의 터전들은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헐리게 되었다. 시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이런 성북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불하되었던 '조선집' 역시 헐리고,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 제 1권역

# 성북동의 유래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서울을 도성으로 정한 후, 도성의 성곽 중 숙정문과 동소문을 연결하는 북쪽 성곽 바깥 지역을 자연스럽게 '성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북동은 남편이 집을 나가자 노구메(산천의 신령에게 제사 지내기 위하여 놋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솥에 지은 메밥)를 차려 매일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는 전설에 따라 '노구멧골'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산세가 험준하여 도둑들이 출몰했다고 해서 '도둑골'로도 불렸다. 조선 중엽에 이곳에 어영청의 북둔을 설치하면서 첫 주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밭을 일구게 하였다. 그러나 성북의 땅은 척박하고 험한 산지여서 경작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성북을 하나 둘 떠나자 결국 영조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었다. 성북동 골짜기의 성북천 언저리에서 도성과 궁궐의 마전(생포목을 잿물에 삶아 빨아서 하얗게 표백시키는 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밥벌이가 되지 못해 사람이 모이지 않자, 종로구 세검정동 언저리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메주 쑤는 권리도 갈라 주었다. 지금도 성북동 언저리에는 마전과 메주 쑤는 일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져 오는데 생포목을 빨래했다고 해서 빨래골, 메주를 보글보글 끓인다 해서 북적골이 생겼다고 한다.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버거운, 돌 많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일을 안 해도 되는 양반들에게 이 지역은 한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산세가 좋고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최고의 별장지였다. 안동 김씨, 청송 심씨, 여흥 민씨 등 조선 후기 최고 권세가들의 별장이 바로 이곳 성북동에 위치했다.

성 밖 10리의 지역이었던 성북동은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경성부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시골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성북동이 급격히 시골의 모습을 잃은 것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부터이다. 함경도 함청 사람들이 피난 와서 이 골짜기를 판자집으로 메우며 일명 하꼬방(판자집)촌을 이루었고, 서울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싼 이곳에 자리 잡으며 성북동에서 복숭아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는 산골들을 하나 둘 깨부수어 주거지역을 새로이 확대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성북동이 도심에서 가깝고 전망과 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특히 외교가에 주로 퍼졌는지 대사관저가 서서히 들어섰고 지금은 30개국의 관저가 세워져 있다.

2015년 현재, 전통과 낭만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인사동과 삼청동, 효자동을 지나 성북동까지 미치고 있다. 수연산방과 길상사, 삼청각은 이곳의 대표 명소로 꼽히기도 한다.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양반 문인들이 즐겨 찾았던 성북동은 이제 가난한 피난민들의 흔적과 부호들의 저택들이 공존하는 특이한 동네가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 서울 선잠단지

서울 선잠단지(사적 제8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4-1



조선의 왕비들은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누에를 치는 방인 잠실로 행차하여 함께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했다. 친잠례를 행하기 전에 누에의 신인 '선잠(先蠶)'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선잠제향(先蠶祭享)'이라고 하는데, '선잠단(先蠶壇)'은 바로 이 선잠제를 치르는 제단이다. 선잠제는 다른 사람을 선잠단으로 보내 대신 행하게 하기도 했고, 왕비가 친잠하는 장소에 별도로 선잠단을 쌓고 직접 거행하기도 했다.

선잠단은 조선 초기부터 등장하는데, 중국의 제도를 따라 성의 북쪽인 지금의 성북동 지역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종 2년(1471)에 지금의 위치 부근에 다시 크게 조성하였다. 선잠제향 역시 국초인 정종 2년(1400)에 설치된 이후 계속 이어졌으나, 순종2년(1908) 7월 선잠신위를 선농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한 후 중단되었으며, 선잠단 역시 방치되었다. 선잠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크게 훼손되어 현재로서는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1939년 10월 18일, 총독부에 의해 보물 제17호로 지정되었고 1963년 서울시가 사적 제 8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선잠단지는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운데에 '선잠단지(先蠶壇址)'라 새긴 표석만이 남아있다.

1993년 지역주민들이 '선잠제 보존위원회'를 만들어 선잠제향을 재현 · 복원하였고, 현재까지도 매년 5월마다 선잠제향을 재현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15분.

# 성락원

성락원(명승 제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길 29-8





원래 조선 말 순조 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된 별서(別墅)정원이었다. 이 저택은 1992년 12월 28일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8일 명승 제35호로 변경되었다. 조선 말 철종 대 이후 청송 심씨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것을 의친왕 이강(李堈)이 별궁으로 사용했고 그 아들 이건(李鍵)도 이곳에 거주했다.

성락원은 자연적인 지형 그대로를 살려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도심 속의 청류(淸流)를 즐길 수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북한산 구준봉(狗蹲峰)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 개울물이 암벽 사이에서 합쳐지는 쌍룡동천(雙龍洞天)이 나타나고, 다리를 건너서는 깊숙한 내원(內園)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인조 동산인 용두가산(龍頭假山)을 조성해 놓았다.

이 저택은 진입 공간・본원 공간・심원(深園)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성격이 뚜렷하다. 먼저 쌍룡동천・용두가산으로 이루어진 진입공간은 자연스레 구성된 수풀과 Y자형의 개울 그리고 인공적인 석가산이 교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본재누각(本齋樓閣)・영벽지(影碧池)로 이루어진 본원공간은 생활・수학・수양의 기능을 수용한 공간으로 여러 채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본재누각만이 남아있다. 영벽지는 인공이 가해진 자연 연못의 진수를 보이며 여기에 비치는 그림자가 공간의 깊이를 더해 준다.

수각정(水閣亭)・연지(蓮池)・약수터로 이루어진 심원은 건물군 뒤의 후원과 같은 곳으로 암반을 막아 만든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정자각 형태의 11칸짜리 건물인 송석정(松石亭)이 높다랗게 세워져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 정자 안에는 노송이 지붕을 뚫고 서 있어, 지붕 위에 나무 그늘이 지는 것을 피해왔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있다. 송석정은 선비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일제 말기에 불탄 것을 1953년에 복원하였다. 또한 여성 관광안내원과 주한 외국여성들에게 한국 전통 예절을 교육시키는 '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5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20분.

# 이종석 별장 (성북동 이재준가)

이종석 별장(서울시 민속자료 제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1



이종석 별장은 조선 말기에 마포강에서 젓갈장사로 부자가 된 이종석(일명 이종상, 이종숙)이 1900년경에 지은 별장이라고 전하며, 일설에는 왕족이 지은 별장을 매입했다고도 한다. 1960년 12월 대림산업 회장을 지낸 이재준이 취득하여 성북동 이재준가(家)로도 불린다. 1985년 11월 덕수교회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교회의 수련원, 목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북동 서쪽 골짜기, 장방형의 집터에 지어진 이 집은 서북쪽은 낮은 동산이고 집터 앞은 좁은 길이다. 이 집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인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물이 있는 바깥마당의 동북쪽에 안채가 있고, 북쪽에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6간, 측면 3간인 'ㄹ자' 모양의 평면의 구조를 가진 남향집이다. 건평은 29.8평에 이른다.

대청 옆 누마루에 『일관정(一觀亭)』이라고 쓴 편액을 걸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회색벽돌로 영롱담을 쌓아 집 터 주위를 둘러막았다. 특히 안채로 드나드는 일각대문과 그 바깥마당의 우물가는 집터 주위의 수목과 마당의 소나무와 어울려 예스러운 맛을 더해준다. 이 집은 살림집이라기보다 별장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성북구립미술관 · 쌍다리 앞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5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25분.

# 심우장

만해 한용운 심우장(서울시 기념물 제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만해 한용운 선생이 숨결이 남아 있는 심우장의 모습

심우장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을 지은 시인이며,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불교 개혁을 외치기도 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55세 되던 1933년부터 1944년 6월 29일 입적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

'심우(尋牛)'는 소를 찾는다는 뜻이다. 수행자가 본성을 깨달아 가는 10단계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심우도(尋牛圖)라고 하는데, 심우의 단계는 이 가운데 첫 단계이기도 하다. 심우도의 마지막은 본성을 깨달은 수행자가 다시 대중 속으로 향하는 것이다. 즉 심우장은 한용운 선생이 인간의 본성을 깨우쳐 다시 대중 속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지은 이름이며, 이는 그가 평생 주장했던 대중 속의 불교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심우장은 벽산 스님이 땅을 제공하였고, 수학교사인 최수동이 설계하였으며, 방응모와 박광, 그리고 아내 유숙원 등이 자금을 보태어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보기 싫어 북향으로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한용운은 이곳에 거처하며 그의 또 다른 본거지인 선학원을 출입, 불교 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흑풍』을 집필하는 등 문학 활동도 이어갔다. 독립투사 일송 김동삼 선생의 영구(靈柩)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곳도 바로 이곳 심우장이었다.

한용운 선생의 딸인 한영숙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심우장에서의 삶은 가난했지만, 밥을 굶을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43년 겨울, 중풍으로 쓰러진 후 한용운 선생의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1944년 6월 29일, 그토록 그리던 광복 1년여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달리한다. 그의 나이 66세 되던 해였다.

심우장은 현재 성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비록 한용운 선생은 가고 없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건물 안을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가 직접 심었다는 향나무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우장에서 한용운 선생의 자취를 느끼고, 그의 시를 읽으며, 치열했던 그의 독립운동과 삶을 되새겨 보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혹은 명수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5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북정마을 노인정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3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30분.

# 상허 이태준 고택 (수연산방)

상허 이태준 고택(등록문화재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6길 8



이 집은 상허 이태준이 29세였던 1933년에 지어 '수연산방(壽硯山房)' 이란 당호를 짓고, 1946년까지 거주하였던 곳이다. 이태준은 이곳에서 「달밤」, 「돌다리」, 중편 「코스모스 피는 정원」, 장편 『황진이』, 『왕자호동』 등의 문학작품을 남겼다. 이태준의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된 「목수들」에는 이 집을 지은 과정과 터의 내력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 집은 앞에 내를 두고 뒤에 동산을 낀 터에 서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막돌로 쌓은 화장담에 일각대문(一角大門)이 세워져 있다. 집터 안에는 북동쪽에 몸채 하나만 배치되고, 행랑채 등의 별채는 없다.

1933년에 지어진 건평 23.2평의 이 건물은 서남향한 '공자(工字)'형의 집으로 평면은 보통 'ㄱ자'형 집과 비슷하지만, 부엌이 뒤쪽으로 붙어 있고 앞쪽에 누마루를 설치한 것이 다르다. 즉, 중앙 2칸을 대청으로 하고 대청의 남쪽에는 한 칸 크기의 안방을 만들고, 안방 앞에는 작은 한 칸 크기의 누마루가 놓였으며, 뒤에는 반 칸 크기의 부엌이 있다. 대청의 북쪽에는 한 칸 크기의 건넌방이 배치되고, 대청과 건넌방 앞에는 툇마루가 길게 놓였으며, 건넌방 뒤에는 한 칸 크기의 뒷방이 있다.

기단은 다듬돌로 줄을 맞춰 쌓은 네벌대이고, 초석은 긴 육면체로서 위가 약간 좁은 네모뿔대 모양인데 면을 접었다. 기둥은 약간 흘림을 가진 각주(角柱)로 면을 접었으며 도리는 납도리로서 역시 면을 접었다. 정면4간, 측면4간의 이 집은 별장형 주택의 작은 집이면서도 모든 것이 알차고 예쁘장하게 의장이 되어 있다. 특히 감나무, 사철나무로 주류를 한 이 집의 정원은 민가 정원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한다. 뒤쪽을 약간 덧달아서 개축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는데, 이 집은 규모는 작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집약시킨 집으로 1930년대의 개량 한옥이 갖는 요소들을 잘 지니고 있다. 현재는 개조되어 찻집으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대학원대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3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22분.

#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 이용, 성북초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17분.

한국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 상량 직후의 모습(유족소장)



성북초등학교 정문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이 있다. 간송미술관은 북단장(北檀莊)이라 불리던 곳에 간송 전형필(全鎣弼)선생이 1938년 설립하였다. 미술관의 중심건물인 보화각에는 전형필 선생이 평생 동안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제일의 고서화 소장처로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발족한 이래 1971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에 소장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개최 시에는『간송문화』라는 도록을 발간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및 보물급 등의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한국 미술품 소장 미술관으로서 미술사 연구의 메카라 할 수 있다.

간송미술관에는『훈민정음』(70호),『동국정운』권1, 6(71호), 〈금동계미명삼존불〉(72호), 〈금동삼존불감〉(73호), 〈청자압형수적〉(74호), 〈청자기린유개향로〉(65호), 〈청자상감포류수금문정병〉(66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149호), 혜원 신윤복의 〈쌍검대무〉(135호) 등 국보로 지정된 9점과 〈백자박산향로〉(238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376호), 〈금보〉(283호), 〈금동여래입상〉(284호), 〈금동보살입상〉(285호),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286호), 〈분청박지화문병〉(287호), 〈분청사기모란문반합〉(348호), 〈청자상감모자합〉(349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241호), 〈괴산 외사리 석조부조〉(579호), 〈전 문경오층석탑〉(580호) 등 보물로 지정된 12점이 소장되어있다. 서울특별시에서 1974년 5월 12일에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삼층석탑〉(28호), 〈석조팔각부도〉(29호), 〈석조미륵불입상〉(30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31호) 등 4점도 정원에 세워져 있다.

# 최순우 옛집

최순우 옛집(등록문화재 제268호) 서울 성북구 성북로15길 9



최순우 옛집 앞뜰의 모습

최순우 옛집은 혜곡 최순우(1916~1984)선생이 살던 집이다. 최순우 선생은 개성부립박물관 입사 이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기까지 평생 박물관에 재직하면서 박물관의 발전에 힘썼다. 한국 도자기와 목공예, 회화사 분야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 미(美)를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옛집에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서서』,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아름다운 글들을 집필하였다.

최순우 옛집은 2004년 '혜곡 최순우 기념관'으로 개관하여 혜곡 선생의 유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봄, 가을에 문화프로그램을, 가을에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최순우 옛집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이 아닌 '시민문화유산 제1호'이다. 이 '시민문화유산'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모금을 하여 등록한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복원되어 평생을 문화재 보호에 앞장선 최순우 선생의 정신이 더욱 빛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ㄱ자' 형 안채와 'ㄴ자' 형 바깥채로 된 'ㅁ자' 형 집으로, 아담한 안마당과 뒷마당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는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순우 선생이 사용했던 책상과 고서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 이용,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12분.

# 한국가구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21



한국가구박물관의 모습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 전통 목가구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특수 전문 박물관이다. 한국가구와 함께 한국 전통 주생활과 전통 실내 장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성화 되어있다. 특히 서울 중심에서 10분 거리인 성북동에 위치하여 민속촌에 가기 힘든 외국인이 한국 주생활 전통을 피부로 느끼고 갈 수 있는 생활사 공간이다.

각 개인의 특징적인 수집으로 특성을 살린 인간적인 전시 분류방법을 도입, 한국 전통 가구를 종류별(사랑방, 안방, 부엌 등), 재료별(먹감나무, 은행나무, 대나무, 소나무, 종이 등) 지역별(각 지방 특성 순)로 분류 전시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대학원대학교 혹은 명수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31분. 03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7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35분.



# 정법사

정법사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76

## 사진작음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乾鳳寺)의 포교당이었는데 1960년 이곳의 조그만 암자인 복전암(福田庵)으로 이전하였다. 본래 정법사가 위치했던 가회동은 수행처로 적합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이 암자를 인수하여 정법사로 개칭한 것이다. 이곳에 있었던 복전암이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현재 정법사에 봉안되어 있는 범종과 열반도(涅槃圖)가 1922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이 복전암의 유물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 정법사 부근의 요정 대원각이 원래 후궁 터였다는 점에서 복전암이 후궁들의 기도처였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정법사는 대웅전・팔상전・사천왕문・산신각・요사 3동 등 7채의 건물 외에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정법사가 이전해 올 당시 서대문 신학대학에 있던 황태자궁을 이전해 온 것이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지장・관음 등의 불상과 1918년에 그려진 열반도・후불탱화・현왕탱화 등이 있으며, 1969년에 건립된 팔상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청동으로 만든 천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명수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8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슈퍼앞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32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42분.

# 길상사

길상사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삼청각, 청운각과 함께 최고급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 자리에 세워졌다. 성북동 깊숙한 산자락의 대원각 주인이었던 고(故) 김영한 여사가 7천여 평 대지와 건물 40여 동의 부동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해 길상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김 여사의 유해 또한 화장되어 이곳에 뿌려졌다.

1997년에 길상사 개원법회를 봉행하였고, 이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의 경전과 수행법을 좀 더 알기 쉽게 체험하는 시민선방 '길상선원'을 개원하였는데, 이후 길상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찰을 돌아보는데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불도 체험,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과 고사리 손의 미술대회, 대중가수의 콘서트까지 개최하는 등 도심 속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도량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대학원대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2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1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26분.





## 백석과 자야, 그리고 길상사 이야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 백석은 사실 길상사와 직접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길상사에 오는 연인들은 이곳에서 백석을 떠올리고, 가끔 서로에게 백석의 시를 읽어주기도 한다. 바로 길상사를 시주한 '자야' 김영한과 백석의 사랑 이야기 때문이다.

백석은 1936년 4월 조선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함흥 영생보통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한다. 당시 백석은 원치 않던 기자 생활에 지치고, 뜻대로 되지 않던 짝사랑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함흥으로 부임하면서 백석은 다시 활력을 찾았다. 영어 교사는 그가 오랫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1936년 1월 시집 『사슴』의 발표로 백석은 이미 온 문단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듯 교사 생활에 집중했다.

인구 5만의 크지 않은 도시 함흥에서도 백석은 '모던보이'의 풍모를 잃지 않았다. '두 줄의 단추가 가지런히 반짝이는 곤색 양복에, 올백머리, 그리고 광택이 나는 가죽구두를 신은' 백석은 영생보고 학생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50여명 학생의 이름을 첫 수업부터 모두 외워 부르는 모습은 학생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 학생들과 교지를 만들었고, 연극반을 지도하기도 했다. 자야를 만난 것은 바로 그해, 1936년 가을이었다.

자야(당시의 기명 진향)는 당시 함흥 권번에 속해 있었다. 해관 신윤국 선생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던 진향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신윤국이 구속당하자 귀국하여 그가 있는 함흥으로 향했다. 진향은 신윤국을 면회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함흥 권번이었다. 이곳에 속해 유력자들을 만나 면회를 청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영생보고 교사의 이임식이 끝나고 송별회가 있던 날 밤이었다. 그들은 당시

함흥에서 가장 큰 요릿집 함흥관으로 향했다. 백석은 그 무리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진향이 처음으로 손님을 맞기 위해 함흥관에 나간 날이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백석은 첫 눈에 진향에게 반했던 것 같다. 백석은 술이 오르자 아까 억지로 옆자리에 앉혔던 진향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잘생긴 외모에 흐트러짐 없을 것 같던 단정한 모던보이의 이 말에 진향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바닥모를 깊은 늪 속으로 빠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어 백석이 말했다. "오늘부터 마누라 뜻대로 내 몸을 맡아 주어야 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 됐다.



백석은 학교 일과가 끝나면 바로 진향의 하숙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럴 때면 진향은 백석을 집까지 바래다주곤 했는데, 진향을 혼자 보낼 수 없던 백석은 다시 진향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당시 백석의 나이 26살, 진향의 나이 22살이었다.

'자야'라는 이름도 이때 백석이 지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진향은 미나카이 백화점(『내사랑 백석』에는 하라다 백화점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하라다 백화점은 서울에만 있었다고 한다. 안도현, 『백석평전』, 2014, 다산책방, 148쪽)에 들려 몇 권의 책을 사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자야오가』라는 당 시선집이 있었다. 이 책에는 이태백이 지은 제목과 같은 『자야오가』라는 시가 있다. '한 밤중 까마귀 소리'라는 제목의 이 시는 원정을 떠난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 시를 진향에게 설명해준 백석은 진향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는 시의 제목을 받는다는 생각에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도 스쳤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선물하는 이름이라는 행복감은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백석은 아직 자신의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첫사랑은 통영이 고향인 박경련이었다. 백석은 정식으로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통영으로 향했다. 자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진심이었겠지만, 기생이라는 그녀의 신분은 자야를 결혼상대로 생각할 수 없게 했다. 그렇게 통영으로 향한 백석은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는다. 청혼이 거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 친구 신현중과 첫사랑 박경련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1937년의 일이었다. 신현중은 박경련에 대한 백석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친구였다. 백석은 큰 상처를 받았다. 1938년에 발표한 시 「내가 바라는 것은」에는 당시의 상처가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것만 나는 하이얀 자리 우에서 마른 팔뚝의
샛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틀하든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상처 받은 백석이 돌아갈 곳은 자야의 품 밖에 없었다. 이후 백석의 결혼 소식을 자야가 잘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몰랐던 듯하다. 백석도 첫사랑의 시련과 친구의 배신을 잊으려는 듯, 자야에게 더욱 몰입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백석은 경성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 당시 많은 '모던보이'가 그랬듯, 백석도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결혼을 한 백석은 다시 자야의 품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얼마 후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만주로 떠나자고 했다. 자야는 백석이 부모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말처럼 자야는 백석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몰래 경성으로 향했다. 그들의 첫 번째 이별이었다. 자야는 서울 청진동에 숨었고, 홀로 남겨진 백석은 잠시 함경도 성천강 상류의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홀로 지내던 자야에게 어느 날 '메신저 보이'가 쪽지를 주고 갔다. 그 쪽지에는 백석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산골에서 나온 백석이 다시 자야를 찾은 것이다. 다시 만나 '하룻밤 머리를 조아린' 둘은 함흥으로 출근해야 하는 백석 때문에 다시 이별을 해야 했다. 함흥으로 향하던 백석은 미봉지 봉투 하나를 자야에게 건넸다. 그 봉투에는 백석이 친필로 쓴 시가 한 편 들어 있었다.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라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 시를 읽은 자야는 '몸과 마음이 야릇한 감동에 오싹 자지러'짐을 느꼈다. 둘의 관계는 다시 급속하게 회복되었다. 백석은 자야를 만나기 위해 축구팀을 이끌고 경성에 오기도 했는데, 이때 자야를 만나느라 축구팀 관리를 잘못하여 영생보고에서 영생여보고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결국 백석은 1938년 1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성으로 향했다.

경성에서 다시 만난 백석과 자야는 청진동에 살림을 차렸다. 청진동에서의 생활은 1938년 12월에서 1939년 12월까지 1년 남짓 이어졌다. 이 생활이 다시 파탄난 것은 역시 백석 때문이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백석은 다시 결혼을 한 것이다. 두 번째 결혼이었다. 자야는 이 소식을 백석의 친구 조 선생이란 사람에게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곧 절망에 빠졌다. 청진동 집으로 다시 돌아온 백석은 얼굴을 들 수 없어 모든 불을 끄고 자야에게 결혼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라고 말했지만, 둘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었다. 백석의 집에서도 결혼을 한 백석이 사라지자, 자야에게 백석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백석을 떠나 명륜동으로 다시 숨어들었다. 백석은 다시 자야를 찾아냈지만, 이제 관계는 전과 같을 수 없었다. 자야는 당시 백석이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생각했다(안도현의 『백석 평전』에 따르면 그것은 자야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백석은 당시 두 번만! 결혼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결국 이번에도 자야가 백석을 떠났다. 이번 행선지는 국내가 아닌 상하이였다.

이번에도 이별은 길지 않았다. 달포 만에 자야는 백석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책상 위에는 백석이 그동안 보낸 편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바로 그날 밤, 백석이 기다렸다는 듯 자야를 찾아왔다. 반가워야할 자리에 냉기가 감돌았다. 백석이 말했다. "나, 신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이 소리를 듣고 자야는 울음을 터트렸다. 백석은 조선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했고, 당시 만주는 해방의 공간처럼 인식되었다. 자야는 백석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져 거절했다. 백석은 다시 애원했다. "나에게는 정말 피치 못할 딱한 사정이 있소. 당신은 죄 없이 쫓겨 다니는 고생 속에 있고, 나 또한 집에를 들어가서 편안히 등을 붙일 단 한 칸의 방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자야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결국 백석이 만주로 떠나는 것은 자신 때문인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자야는 백석의 제안을 끝내 거절했다. "여보!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발 혼자 가 주셔요." 이 말을 들은 백석은 신음하듯 한 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정히 혼자 가라면 혼자 가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이별 후 백석은 말한 대로 만주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6개월 간 측량 등의 일을 하였지만, 이후에는 정해진 일 없이 방황하였다. 1941년 그는 평양에서 피아니스트 문경옥과 결혼했다. 3번째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다. 둘은 일 년여 만에 이혼했다. 백석은 1945년 12월 29일 평양에서 스무살의 리윤희와 결혼했다. 네 번째 결혼이었고, 마지막 결혼이었다. 당시 백석의 나이 34살이었다. 둘은 50년을 넘게 해로 했다.

자야는 다시 기생이 되었다. 1951년 김숙으로 개명한 자야는 당시로는 거금인 650만원으로 청암장을 인수하여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곧 이곳을 당대 최고의 요정으로 키웠다. 3공화국 시절 대원각은 오진암, 삼청각과 함께 3대 요정으로 불리며 '요정정치'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그동안 그녀도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하지만 백석을 잃은 그녀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던 것 같다. 결국 그녀는 1996년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하기로 결정한다. 법정스님은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고, 청정도량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개원한 사찰이 바로 지금의 길상사이다. 가장 더러운 물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음침한 요정정치의 중심지에서 청정도량 길상사가 피어났다.

자야의 이름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법정스님으로부터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지만, 그전에 백석과의 사랑 이야기 『내사랑 백석』을 김자야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그 이전에도 자야는 평생 백석을 잊지 못했다. 매년 백석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백석과 같이 살던 청진동 옛집을 방문하고, 변하지 않은 그 집에서 백석과의 옛일을 떠올리기도 했다. 1997년에는 2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백석 문학상 제정에 앞장섰다.

백석은 1996년 1월 85세의 나이로 양강도 삼수군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인 리윤희와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남겼다. 순수 문학을 주장하던 그에게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해야하는 북한 사회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해방된 북한에서, 해방 전과 같은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

자야는 1999년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슬하에 아들과 딸 둘을 두었다. 아버지가 각각 다를 뿐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녀는 "한겨울 눈이 제일 많이 내린 날 내 뼛가루를 길상사 앞마당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26살, 22살의 풋풋하고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길상사 한 켠에 깃들었다.



# 제 2권역

## 평평하고 드넓은 땅,
## 삼선평에서 유래된 삼선동



성북구 일대는 북한산의 줄기가 곳곳에 뻗쳐있는 탓에 평지가 거의 없다. 취락에 불리한 지형 여건 때문에 사람과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형 여건이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자아냈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에게 명소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처럼 산간지대가 대부분인 성북구에서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성북천 근처의 삼선평, 안암천 일대, 중랑천 · 수유천 일대 정도였다.

그중에서도 삼선평은 혜화문(속칭 동소문)에서 좀 더 밖으로 나가면 이르는 성북천이 만들어낸 평평한 들판이었다. 삼선평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알 길이 없다. 일설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이 동리 남쪽 옥녀봉 봉우리에서 옥녀와 놀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경치가 수려한 이 지역에서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확실한 것은 평(坪)이란 명칭이 붙을 정도로 넓어 조선시대에도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 동소문동의 동자와
## 삼선동의 선자를 따서 만든 동선동



동소문동(東小門洞)의 '동' 자와 삼선동(三仙洞)의 '선' 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오래된 이름은 아니다. 동선동은 동쪽으로 안암동, 서쪽으로 돈암동, 남쪽으로 삼선동, 북쪽으로 돈암동, 동소문동과 접한 지역으로, 동선동 역사의 상당부분은 돈암동과 함께 하고 있다. 1949년까지 돈암동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행정처리가 힘들어지자 동선동은 돈암동으로부터 분리된다.

동선동 동쪽으로는 안감내길이 성북천을 따라 지나가는데, 안감내는 성북천 또는 안감천의 옛 이름이다. 동선2동에는 남북으로 지나는 아리랑 고갯길이 있다. 이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인데 아리랑고개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고개 이름에 대한 유래는 2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1935년 일본인들이 고급 요정을 꾸민 다음 이곳을 알리기 위해 민요 아리랑의 이름을 따서 고개 위에 푯말을 세웠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춘사 나운규 선생의 영화 아리랑을 이곳에서 촬영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 설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 성북구청에서 매년 아리랑축제를 개최하고 영화의 거리로 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 되너미골, 되너미재에서 유래된 돈암동



성북구의 중심동이라 하면 돈암동이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돈암동은 중심 시가지로서 자리 잡고 있다. 돈암동의 한자명은 도타울 돈(敦) 자와 바위 암(岩) 자이다. 오늘날 돈암동의 잘 정비된 도로와 번화한 거리를 생각해보면 현재의 모습과 상당히 거리가 먼 뜻의 한자임을 알 수 있다. 돈암동은 동쪽의 안암동 산자락과 서쪽의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위치해있는 긴 골짜기 지형으로 예로부터 절이나 신당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돈암동 명칭의 유래가 된 미아리 고개는 병자호란 당시 오랑캐, 즉 되놈이 이 고개를 넘어 서울에 침입해왔기 때문에 되너미고개, 되너미재라고 불렸다고 한다. 한자로는 돈암현(敦岩峴), 적유현(狄踰峴)이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이 동리이름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의 미아리 고개는 여러 차례 깎여져 낮아지고 그 폭도 넓어졌지만 본래는 몹시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였다. 도성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갈 경우, 이 고개가 마지막 장애물이었는데, '끝에 이른 고개', '마지막 고개'로서 경사가 몹시 심하여 밥을 되먹는 고개라 하여 되너미 고개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이처럼 험준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를 넘는 길이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한 경원가도(京元街道)와 도성을 잇는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적 평탄한 종암동 방면의 길보다 이 길을 선호했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좁은 의미로는 도성 안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 밖 10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지역을 성저십리, 성저오리라고 불렀는데, 성북의 다른 동리(洞里)와 마찬가지로 돈암동 또한 성저십리 지역으로서 한성부 성 외곽 지역인 숭신방에 속해 있었다. 이것을 조선 말 갑오개혁 때 한성부 동서 숭신방 동문외계 돈암리로 호칭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1911년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돈암리로 하였다가, 1914년 경성부 축소 당시 경기도 고흥군 숭인면 돈암리로 바꾸었다. 이후 1936년 경성부 확장 때 편입되어 일본식 동명으로 돈암정이라 칭하였고, 1943년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광복 후 1946년에 돈암정은 일본식 동명을 버리고 돈암동으로 바뀌었다. 1949년 8월 15일에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돈암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의 돈암동은 지금과 달리 성북구에서 꽤 넓은 지역을 포함한 동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 돈암동의 인구가 급증하여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으로 분동되면서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친 산록의 지역이 현재와 같이 돈암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돈암리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거주지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는 도시빈민인 토막민의 유입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서 토막이란 토굴과 더불어 일제하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도시 슬럼의 주거형태다. 이는 경술국치 이후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농경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특히 홍제정, 신당정과 함께 돈암정은 고지대 구릉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 변두리 빈민주거지로서 경성부의 토막촌이 대규모로 분포했던 지역이었다.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4년 당국은 일본 정토종 개교원이 개설한 사회사업단체인 화광교원에 보조금을 주어 토막민을 수용하려 하였다. 당초에 약 1000호 정도를 수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급경사인 관계로 500호 정도의 토막민밖에 수용하지 못했다.

토막민들은 1942년을 기점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치루면서 본토의 노동력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러자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던 토막민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북해도 등지의 철도, 토목 공사장으로 파송하였다. 당시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 수를 헤아릴 순 없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이때 북해도나 사할린 등지로 강제파송되었다고 한다. 강제파송이 시작되자 많은 토막민들은 토막을 부수거나 그대로 남겨둔 채, 가족과 함께 시내의 셋방으로, 고향으로, 만주 등지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8.15 광복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 토막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 보문사에서 유래된 보문동



성북구 남단에 위치한 보문동의 이름은 보문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동부 숭신방의 신설계(新說契)에 속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고양시 숭인면에 속했던 적도 있었으며,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신설정'이라고 불렸다. 1943년에는 동대문구의 관할로 편제되었으며, 1946년 신설동으로 불리다가 일부 지역이 지금의 '보문동'이 되었다고 한다.

보문동은 안암동과 삼선동의 산기슭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이 부진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동망봉에 터널을 만들어 성북구의 안암로와 종로구 숭인동의 지봉로를 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한다. 동망봉에는 청룡사가 있는데, 단종비가 이곳에 머물며 매일 언덕에 올라 단종이 쫓겨난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동망봉(東望峰)이라는 지명 역시 이런 사연에서 유래한 것이다.

## '앉일바위' 라 하던 것을 한자로 옮겨 쓴 것에서 유래된 안암동




안암동은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의 동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안암이라는 동명 유래는 문헌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 안암동 3가의 대광아파트단지 가운데에 20명이 앉아 편히 쉴만한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 바위 이름을 '앉일바위'라 했고 한자로는 '안암'이라 옮겨 썼는데 여기서 동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안암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해 있었으며, 조선 말기 고종 때 발간된 『육전조례』에는 한성부 동부 숭신방 안암계로 되어있다. 갑오개혁 때는 한성부의 행정조직이 부(府) 대신 서(署)로 고쳐져서 한성부 동서 숭신방 동문외계 궁리, 원리로 칭하였다. 한일병합 후인 1911년 4월 경기도 경성부 숭신면 안암리가 되었고, 1914년 4월에 안암리, 부석리, 궁리, 원리를 경기도 숭인면 안암리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36년 4월 경성부 확장 때 편입되어 경성부에 속하게 되면서 안암정이라 칭하였다. 1943년 6월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고 광복 후 1946년 10월 안암정에서 안암동으로 바뀌었다. 1949년 8

월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이에 속하게 되었으며 안암동 1~5가로 구분되었다. 1955년 4월 동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 동회제도 대신 행정동이 설치되면서 안암동은 동암, 남암, 서암의 3개 동으로 구분되었다. 이 3개 동은 그 후에 안암 제1동, 제2동으로 고쳐졌다가, 1977년 관할구역 개편이 있을 때 다시 안암동 1개동으로 통합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1395년부터 자신의 능지를 정할만한 산지를 찾아 산수 좋은 곳을 왕래하였는데『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안암동은 태조의 능지로 지목되었다. 1396년 8월에는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태조가 흰 옷에 흰 관을 쓰고 능지를 친히 보러 안암동으로 나갔으니, 그가 일찍부터 안암동 산록의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달 21일에 다시 안암동으로 나가 산지를 정하고 이튿날에 땅을 파보니 물이 솟아나서 중지하고, 그 다음날 취현방, 즉 지금의 중구 정릉으로 나가서 능지를 정하였다. 1406년 9월에는 태종이 안암동 검교 호조전서 김식의 집을 수리하게 한 뒤 이어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태종 역시 안암동 일대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암동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 밖 지역에 속하였는데, 승려들이 많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1년 6월 승도들의 초막을 철거시킨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는 안암, 사을한 등 성북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암동 일대는 사냥터로도 쓰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곳에 일반인의 경작을 금하고 나무를 심어 산맥을 보호하게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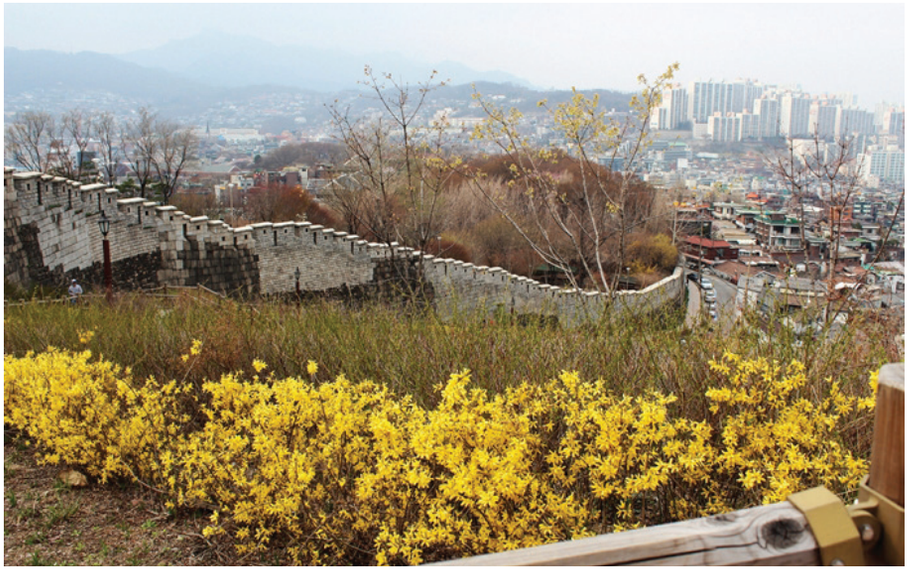
1914년, 안암리로 칭하던 시기에 궁리(궁말), 원리, 부석리까지 포함시켰다. 궁리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의 아들 영순군이 거주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고, 원리는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의 묘소 영명원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 이 원은 속칭 '애기릉'이라고도 한다. 궁리는 광평대군 세거지였을 뿐 아니라, 태조의 일곱 번째 아들인 무안군 방번과 그 부인 왕씨, 광평대군과 그 부인 신씨, 광평대군의 아들 영순군과 그 부인 최씨 3세대를 봉사하는 광평대군 일가의 사당이 있어 '사당말'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였다.

안암동 5가와 동대문구 제기동 사이에 있는 안암로 큰길의 나지막한 고갯길로 제터고개라는 곳이 있다. 옛날 제사 드리던 터가 있는 부근이라 하여 얻어진 이름이며, 그 부근 마을 이름 또한 '제터'로 불려왔다.



# 서울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서울 장안을 지키던 울타리였다. 둘레가 약 18Km나 되며 서울의 4대산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 걸쳐 지어졌다. 태조는 한양에 종묘와 사직, 궁궐을 지은 뒤 바로 이 성곽을 세우는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세종, 숙종 등의 왕들이 성곽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 성곽의 공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이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도 함께 올라왔다. 지역별로 맡은 구간의 공사가 끝나면 석성 벽면에 직접 자신의 지역과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1915년 한양도성에 위기가 닥친다. 일제가 근대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성곽과 성문들을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선동과 낙산자락에 걸쳐 있던 성곽이 다행히도 일제의 손길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남아있다.

현재 낙산에 있는 한양도성 성곽은 낙산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성곽 벽면에 붙어 지어진 집들은 하나둘 철거되었고, 성곽 위로 펼쳐진 길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었으며, 색색의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 낙산공원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삼선동이, 한쪽으로는 대학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요즘은 대학로나 동대문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쉽게 올라올 수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명수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삼청각까지 도보 13분, 숙정문까지 도보 20분.

**지하철 Subway**

성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혜화문까지 도보 5분.

# 삼군부총무당

삼군부총무당(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4길 147




삼군부 총무당의 모습. 비록 장소는 옮겨졌지만 조선 군대의 업무를 총괄하던 기상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총무당은 조선말 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정1품 아문인 삼군부(三軍府) 청사의 중심 건물이다. 본래 정부종합청사 자리(세종로 50번지)에 위치했던 이 관아 건물은 1930년대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942년부터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로 사용되다가 서울시 직업 훈련원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건물이 낡고 퇴락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1979년 8월 복원공사에 착수하여 이해 12월 20일에 완공한 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총무당은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물로, 장대석(長臺石)으로 기단을 돌렸다. 평면은 정면 7간, 측면 4간으로 중앙 정면 3간, 측면 2간을 대청으로 하고, 좌우에 정면 1간, 측면 2간의 온돌방을 두고 그 옆에 정면 1간, 측면 2간의 광을 두었다. 중앙 어간(御間) 창방에는 '총무당(總武堂)'이라는 현판이 있고, 앞면의 여덟 개 기둥에도 각각 주련(柱聯)이 붙어 있다. 총무당은 공릉에 소재한 청헌당과 함께 조선시대 관아 건축의 배치와 건물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현존자료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02번 마을버스를 이용, 한성대정문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0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한성대학교 방면으로 도보 12분.

# 돈암장

돈암장(등록문화재 제9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84




돈암장의 모습. 현재는 개인 소유로 들어가 볼 수 없다.

삼선중학교 아래에 위치한 이 청기와집은 돈암동에 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는데, 광복 직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2년 간 머물렀던 곳이다. 2004년 9월 4일자로 등록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돈암장 자리에는 원래 조선시대의 빈민 환자, 주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립의료기관인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었다. 활인서는 고려 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후신이었다. 태종대에는 활인원(活人院)이라 하였고, 세조12년(1466)에 활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가 광해군 4년(1662)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혜민서와 통합되어 이어졌고 다시 제중원, 대한적십자병원에 계승되었다. 동활인서는 조선 전기에 동소문 밖 연희방, 현재 이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 말 순조 때 저술한 『한경지략』에는 동활인서는 쇠퇴해서 폐지하였다고 하였고,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선 후기 정조 때에 중구 신당동 236번지, 304번지 일대로 이전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동활인서 터에는 일제강점기 때 평산(平山)목장이 자리 잡아 젖소 등을 길렀는데, 이송래가 이곳에 청기와로 기와집을 짓고 이를 소유하였다.

광복 직후 이승만 박사는 설산 장덕수 선생의 권유로 이곳에 머물렀다. 이승만 박사가 돈암장에 머문 2년 동안은 미군정기의 혼란한 시기여서 각종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자 우익 정치인들이 이 집에 모여 좌익계열의 찬탁(贊託)에 맞서 반탁(反託)운동을 전개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710번 버스를 이용, 삼선교·한성대학교 정류장에 내려 도보 4분. 01번 마을버스를 이용, 국민은행 동소문동점 혹은 한신 103동 앞 정류장에 내려 도보 4분.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로 나와 도보 9분.

#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본관(사적 제 2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근대식 학교 건축물이다. 이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 3,263㎡(975평), 지상3층(중앙탑 6층)이며 화강암을 주재료로 한 좌우대칭의 고딕양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이 학교의 행정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본관이다. 1932년 당시 경성부 교외인 안암리에 터를 잡고 1933년 9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는데 당시 금액으로 19만원이 들었다. 본래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4월 당시 내장원경(內臟院卿)이었던 이용익(李容翊)이 지금의 수송동에 있던 노어학교(露語學校)자리에 법률과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개교하였으나, 그 후 1910년에 천도교에서 인수하여 안국동에서 목조 2층 교사 두 채로 법과와 상과 전문 과정을 교육하였다. 그 후 1932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주(校主)였던 김성수(金性洙)선생이 인수, 현 안암동의 교지를 사들여 본관과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고 오늘의 고려대학교 기틀을 마련하였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 101, 144, 163, 273, 1017, 1111, 1222, 2222, 7211번 버스를 이용, 고려대학교앞 정류장에서 도보 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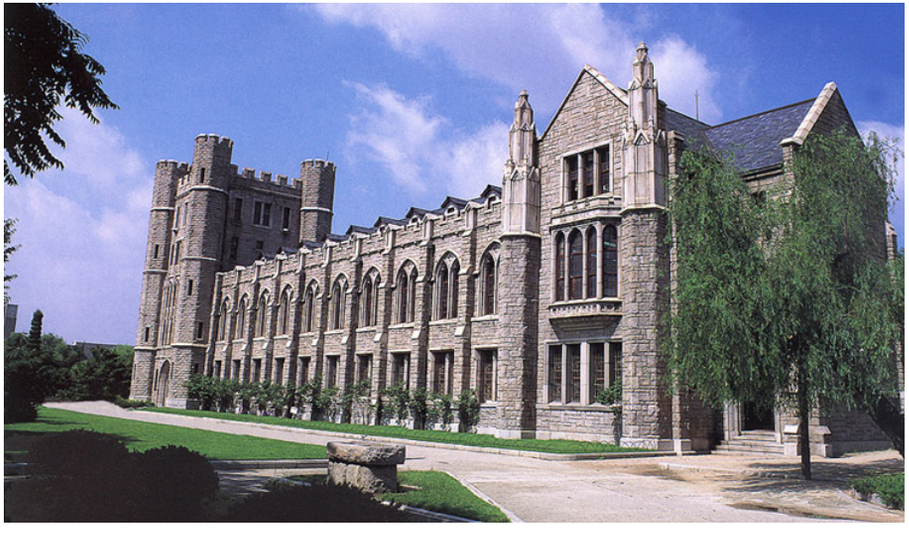
**지하철 Subway**

고려대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 11분. 안암역(고대병원앞)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9분.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사적 제2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본관이 준공된 다음 해인 1935년 6월 착공하여 1937년 9월 준공되었다. 일반부는 지상 3층, 우측 탑실부는 지상 5층, 연면적 4,089㎡(1,236.92평), 철근콘크리트 구조이었다. 설계자는 본관과 같이 박동진(朴東鎭)이다.

공사비 22만원이 소요된 이 건물은 당시 최신식이었다. 평면은 'ㄴ'자형으로 남서 모서리에 고딕성관풍(城館風)의 5층탑을 세우고, 이곳에 주출입구를 두었다. 1층에는 교수연구실 32개, 2층에는 250석의 대 열람실을 배치하고, 각 좌석마다 전기스탠드와 가죽을 씌운 회전의자를 두었다. 3층에는 20만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서고를 두고, 3층 이상에는 민속자료·미술품 진열실을 설치하였다. 출입구, 탑의 창호, 남측 창들은 뾰족아치로 쌓고, 서측 창은 수평아치로 쌓았다. 남동측 끝단과 북측으로 돌출된 네 모서리에는 고딕식 튜렛(turret)을 세웠고, 남측 창들 사이에는 부축벽(flat buttress)을 세웠다.

박동진은 이 건물 설계 때 본관 설계와는 달리 김성수(金性洙)의 간섭 없이 설계했다고 말하였다. 이 건물은 고딕풍이며, 건축가 박동진의 석조 기법과 장식에 대한 열정이 배어나는 건축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이 건물은 대학원과 교수연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1, 101, 144, 163, 273, 1017, 1111, 1222, 2222, 7211번 버스를 이용, 고려대학교앞 정류장에서 도보 6분. 20번 마을버스를 이용, 고려대법과대학입구 정류장에 내려 도보 2분.

**지하철 Subway**

고려대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안암역(고대병원앞)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14분.

# 권진규 아틀리에

권진규 아틀리에(등록문화재 제134호)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마길 2-15



권진규 아틀리에는 테라코타, 건칠 작품 등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조각가 故권진규 선생(1922~1973)이 직접 지은 작업실이다. 2006년 권진규 선생의 여동생 권경숙이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증, 1년여의 보수, 복원 공사를 통해 새롭게 보전한 시민문화유산이다.

이 아틀리에는 권진규 선생이 1959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1973년 삶을 마감할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한 곳이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위의 살림집 뒤로 가려진 이 아틀리에에는 선생이 흙 작업을 위해 만든 우물, 굴뚝처럼 솟은 가마와 선반, 책상과 작업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아틀리에의 높은 천장에서 내려 온 선반과 간결한 계단이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현재 이곳에는 선생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과 유품, 미완성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족들의 살림채였던 공간은 아틀리에를 지원하는 부속 건물로 재설계되어 사무실과 다목적실, 화장실 등 각종 활동과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실내의 공간을 외부에까지 확장하는 개방형으로 보수되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 공간은 Artists in Residence(예술가 입주)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틀리에는 건물과 유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개방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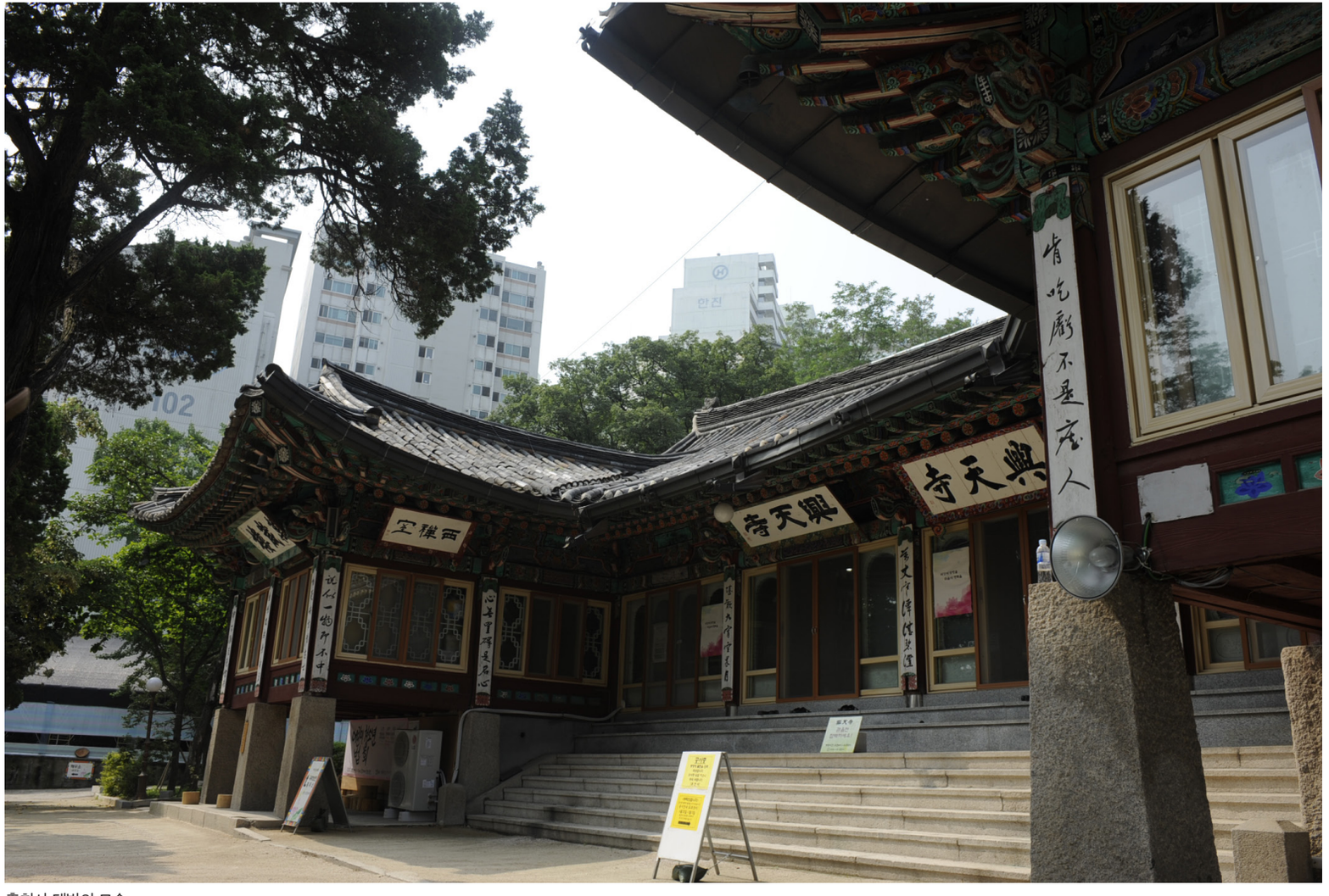
103, 102, 100, 104, 106, 107, 140, 142, 143, 150, 151, 152, 710, 171, 172, 109, 108번 버스를 이용, 돈암사거리, 성신여대입구 정류장에서 도보 7분. 20번 마을버스를 이용, 풍림아파트, 성신초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6분.

**지하철 Subway**

성신여대입구역(돈암) 1번 출구로 나와 도보 10분.

# 흥천사

흥천사.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흥천사 대방의 모습

흥천사는 조선 초 태조 6년에 이성계의 둘째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를 모신 정릉의 원찰(願刹 :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사찰)로서 현재 중구 정동에 창건하였던 절이다.

창건 당시 42수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조계종의 본사로 삼았던 170여간의 큰 절이었다. 하지만 이후 몇 번의 화재를 거친 뒤, 중종 5년(1510)에는 완전히 폐사가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폐사로 남을 뻔한 신흥사는, 정조 18년(1794)에는 승려 성민(聖敏), 경신(敬信) 등이 새롭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고종 2년(1865)에는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절을 중창한 뒤 그 때까지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흥사로 부르는 주민들도 많다.

나무그늘이 늘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처음 나타나는 건물은 대방이다. 대방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양식으로 공양, 수행, 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합건물이다. 흥천사 대방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대원군이 직접 쓴 편액이 걸려있다. 대방을 지나 뒤쪽으로 가면 화려한 전각 하나가 보이는데 이 전각이 바로 철종 4년에 중수되어 19세기 목조건축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는 흥천사 극락보전이다.

옆쪽에는 극락보전처럼 위용이 있지는 않지만, 아담한 느낌의 전각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철종 6년 건립된 '명부전'이다. 명부전이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명부, 즉 저승의 주존으로 모신 것이다. 이곳에는 시왕을 거느린 지장보살상이 배치되고 그 뒷면 벽에 지장보살 후불탱화를 중심으로 좌우에 시왕도(十王圖)가 봉안되어 있다. 옛 목조 건물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단순 소박하게 꾸미고 있는 흥천사의 명부전은 조선 말기인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의 불사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사진작음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62번 버스를 이용, 산장빌라 정류장에 내려 도보 4분.

**지하철 Subway**

성신여대입구역(돈암) 5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29분.

# 적조사

적조사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49-23





북악 스카이웨이 한편에 자리 잡은 적조사는 정릉의 원찰인 흥천사의 사내 암자요, 근대 한국현대불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경산스님의 수행처이자 열반처로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1900년대 중반 한국불교의 중심인 조계종단의 분규와 정화, 그리고 단합의 중심에서 위법망구(爲法亡軀)로 조계종 기틀을 세운 대선사 경산 희진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가는 길은 이처럼 서울 어느 길보다 하늘과 맞닿은 스카이웨이를 통과해야 한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62번 버스를 이용, 508단지입구 정류장에 내려 도보 4분.

**지하철 Subway**

성신여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28분.

# 보문사

보문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인근 미타사와 같이 탑골(塔洞)에 있어 〈탑골 승방〉이라고 잘 알려진 이 절은 전에 조계종 소속이었으나, 1972년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 보문종(普門宗)이 이곳에서 창시되면서 그 본산이 되었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몸 전체의 온갖 덕(德)을 보(普)라 하고, 쓰임을 나타내는 곳을 문(門)이라고 하므로, 『보문(普門)』이란 보살이 일체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와 시기에 따라 그 효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여 평의 대지 위에 대가람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보문사는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조용한 암자이다. 보문사는 처음 고려 예종 10년(1115)에 담진(曇眞) 스님, 즉 혜조국사(慧照國師)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조선 후기 숙종 18년 (1692)에 묘첨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하였고, 영조 33년(1757)에 보찬, 유봉 스님이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순조 26년(1826)에 정운(正雲)스님이 좌우승당(左右僧堂)을 개축하였으며, 헌종 8년(1842)에 영전 스님이 또 다시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복과 함께 주지 송은영(宋恩榮)이 취임하면서 30여 년간을 불사(佛事)의 중흥과 건물 중창에 전심하여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송은영 주지는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 보문종이라는 독립된 종단을 설립함으로써 비구니들만의 고유한 수행 풍토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절은 1972년 대한불교 보문종으로 등록한 후 이 해 6월 16일, 경주의 신라 석굴암을 본 따 사찰 뒤쪽의 보문산 돌산에 석굴암을 조성하였다. 1970년 8월부터 23개월간 진행된 이 불사는 이절의 대표적인 불사(佛事)로서 약 4,500명의 조각가와 석공이 참여하였으며, 2,400톤의 화강석이 사용되었다.

이 절의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대웅전 신중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 지장보살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1996년에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석굴암 앞의 팔각 9층 석탑은 1978년에 오대산 월정사의 탑을 본따 조성하고,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내부에 봉안하였다. 보문사 스님의 범패(梵唄)는 잘 알려진 무형자산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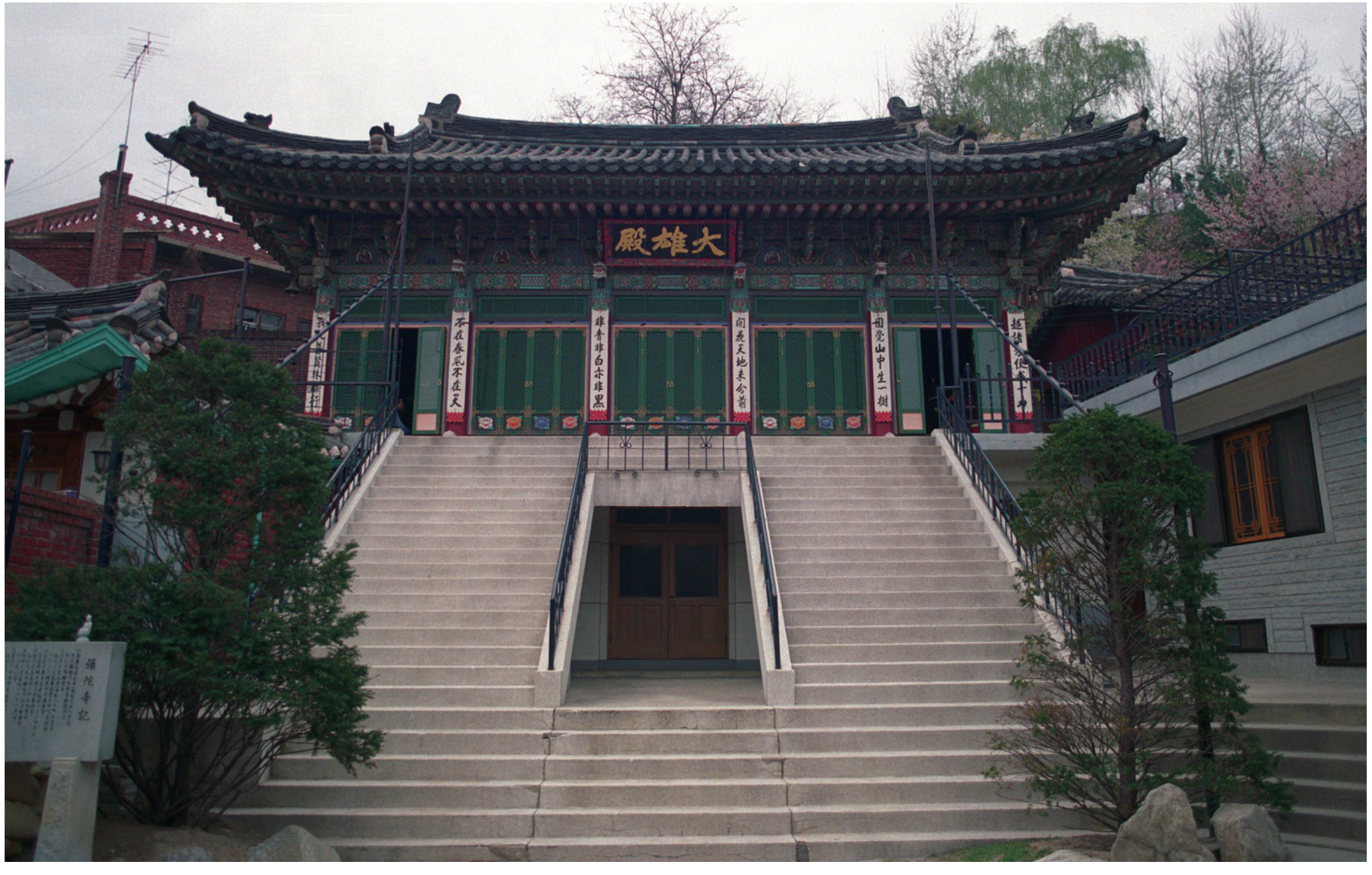
103, 142, 152, 272, 273, 1014, 1111, 1162, 2115번 버스를 이용, 보문역 정류장에 내려 도보 4분.

**지하철 Subway**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15분.

# 미타사

미타사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3-51




이 절은 고려 초 광종 원년(950)에 혜거국사(惠居國師)가 처음 창건하고, 충숙왕 원년(1314)에 혜감국사(慧鑑國師)에 의하여 중건되었다고 하는데, 고려 때 고승(高僧)인 혜거국사와 혜감국사의 비문(碑文)에는 이 절을 개창, 중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려시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고려 초 문종 원년(1047)에 이 절에 석탑을 쌓고 난 뒤 이 부근을 탑골[塔洞]이라 부르면서 미타사 또한 탑골 승방[塔洞僧房]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탑골 승방은 인근의 보문사보다 미타사를 지칭한다고 본다. 조선시대에 탑골 승방은 옥수동의 두뭇개 승방, 석관동의 돌곶이 승방, 숭인동의 새절 승방(청룡사)과 함께 여승들이 거처하는 성 밖 네개의 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조선 초 세조 3년(1457)에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에 의하여 중수(重修)되었다고 한다. 이는 미타사 서쪽, 숭인동의 정업원·동망봉·자지동천 등에는 정순왕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 말 순조와 헌종 때 각각 이 절을 중수한 데에 이어 1969년에 송계주(宋季珠) 주지스님이 중수하였다.

이 절 대웅전 뒤의 단하각(丹霞閣) 왼쪽 언덕 위에는 오래된 석탑 하나가 서 있는데 조성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5층까지는 석재가 같은데 6층과 상륜부는 석재와 조각이 다르다. 6층은 그 조성시대를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기단에는 일부 석재를 보강한 흔적이 있다.

이 석탑이 있었으므로 얼마 전까지 보문동 일대를 '탑골', 이 절을 '탑골승방'이라고 불렀다. 이 절의 대웅전은 지하와 지상 1·2층의 목조 기와로 지어져 2층을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법당 내부에는 아미타삼존불상과 5종의 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그 중에는 1963년에 제작된 신중 탱화도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03, 142, 152, 272, 273, 1014, 1111, 1162, 2115번 버스를 이용, 보문역 정류장에 내려 도보 5분.

**지하철 Subway**

보문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5분.

# 개운사

개운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27길 3




개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개운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국 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불교 교육의 근본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다. 이 절은 조선 초 태조 5년(1396)에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동대문 밖 5리 정도 되는 안암산 기슭,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한 것에서 연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 3년(1779) 5월에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명인원(明仁園)을 세웠다. 이에 인파당(人波堂) 축홍(竺洪) 스님이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영도사를 옮겨지었다고 하나, 『사기(寺記)』라는 문헌에는 영조 6년(1730)에 영도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도사가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말 고종 10년(1873)에 명부전을 세웠고, 7년 후인 1880년에 이벽송(李碧松)대사가 대웅전을 중건했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은 현재 대대적인 중건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내에는 현대식 건물로 지은 지상 5층의 중앙승가대학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절의 암자로서 대원암(大圓庵)과 보타사(普陀寺:안암동5가 157)가 절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273, 1111번 버스를 이용, 안암전철역 정류장에 내려 도보 8분. 20번 마을버스를 이용, 안암역 정류장에 내려 도보 8분.

**지하철 Subway**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8분.

# 보타사

보타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 60-46

사진추가
가능할까요?



보타사는 개운사의 암자이다. 이곳에는 눈에 띄는 마애불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규모의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미륵불이 숨어있다.

보타사의 전각들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미륵불의 크기는 매우 크다. 앉아있는 부처이지만 그 높이가 5미터나 된다. 이 커다란 불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고려 후기 마애불상 중의 하나이다.

마애불상의 왼편으로 '나무금강회상불보살(南無金剛會上佛菩薩)' 등이 새겨진 원패(願牌)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다. 원패는 원래 부처·보살의 이름을 적어 불단 위에 놓는 목재 장식물로 마애불상 옆에 새겨져 있는 점이 흥미롭다. 원패는 시대마다 유행된 문양이 다른데 이 마애불의 원패처럼 연꽃 받침과 연잎이 장식된 직사각형 형태는 고려시대 사경(寫經)의 표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큰 바위에 부조로 새겨진 이 마애불상은 몸 전체에 호분(胡粉)이 칠해져 있어서 흔히 '백불(白佛)'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백불은 옷자락 사이로 주름들이 형식적으로 흘러내린 점, 갸름하면서도 약간 살이 붙은 얼굴 등에서 양식적으로 거의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보타사 마애보살상이 새겨진 바위 면은 보도각의 마애보살상보다 더 굴곡져 있는데 고개를 약간 숙인 얼굴이나 신체의 부드러운 선들은 바위 면을 그대로 이용한 듯 보인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20번 마을버스를 이용, 고려대 안암학사 정류장에 내려 도보 9분.

**지하철 Subway**
안암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8분.

# 미아리고개

????



미아리고개는 미아사라는 사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랑캐들이 넘어오던 고개라고 하여 '되너미고개' 혹은 적유현(狄踰峴)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동북쪽으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큰 고개로, 한양으로 오는 마지막 관문이었으며 많은 사람과 물자가 넘어오는 고개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뭇 사람들의 눈물이 어린 고개로 바뀌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아리고개는 서울의 최후 방어선으로서 인민군과 한국군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수많은 지식인, 애국지사들이 줄줄이 묶여 미아리고개를 통해 북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피난민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주었던 역사는 반야월의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녹아들어 지금껏 애창되고 있다.

미아리고개는 예전에는 우마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매우 경사지고 험준한 고개였다. 그러다 196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1996년부터는 성북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단장되기 시작했다. 고개 정상 양쪽에는 400여 평 규모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었고 성북구의 상징과도 같은 성곽이 둘러졌으며, 안개분수 통일 염원비, 노래비, 미아리고개 유래비 등을 갖춘 소공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도로도 8차선으로 확장되고 육교 대신 구름다리가 들어서 주민의 편의는 물론 미적효과까지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미아리 점성촌〉**

미아리 고개에는 위로는 고가도로가 있고, 아래로는 미아리 점성촌이 있다. 이곳에 형성된 점성촌은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점성촌이다. 이 점성촌의 점술가는 거의 모두 맹인이고, 전문적으로 주역을 공부해서 그 이론을 토대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전에 종로3가에 집단 거주하던 맹인 점술가들이 남산 주변 정비로 흩어졌다가 미아리고개 주변에 정착하면서 생기게 되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맹인들이 전문 점술가로서 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인이 점복을 했다는 것은 고려 원종(1259~1274)조의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충렬왕 시대의 기록들까지 합쳐보면, 고려시대에도 맹인 점술가(고려시대에는 맹인승려 곧, 맹승)들은 8품 이하의 관리로 길흉화복을 점쳤을 뿐만 아니라 기우제에도 동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고려 당시에 일단의 맹승들이 기우제에 동원되었음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맹인들이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려 말 조선 초는 유학이 중시되면서 역학과 매복맹인이 천시 받아 그들의 신분이 격하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천시 속에서도 맹인 점복업은 발전할 수 있었다. 음양학이 관학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국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점복 맹인들의 사회적 기능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에 맹인의 직업으로 발전된 점복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성현은 우리나라 명과류가 모두 맹인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점복업이 맹인의 직업(전업)임을 분명히 했다. 이능화라는 사람 역시 조선 이래 맹인의 업이 주로 명과이니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풍속인 것 같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많은 맹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 점복가로서 활동하던 맹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점복가보다는 침술사나 안마사의 길을 걷게 된다. 미군정기에는 녹음을 속기하는 새로운 직업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생활을 위한 자립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맹인 점술가들의 생활상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원래 종로3가에 집단 거주하던 맹인 점술가들은 한국 전쟁 발발과 함께 남산 근처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그들을 강제 이주시킨 명목은 남산주변의 도시정화였다. 살 곳을 찾던 이들이 몰려든 곳은 바로 이 미아리였다. 미아리 점성촌 지역에 가장 처음 정착한 이병도씨 그리고 철원집, 청씨, 조재명이 등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점성촌으로서 큰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는 이곳의 전성기였다.

미아리 점성촌에 가면, 아직도 수많은 철학관들이 줄을 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전의 명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찾는 이가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대한시작장애인복지관 역리학회와 그리고 대학맹인 복지회가 연합하여 세웠다. 이곳은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을 모아 만든 유일한 민간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03, 102, 100, 104, 106, 107, 140, 142, 143, 150, 151, 152, 710, 171, 172, 109, 160, 108(TS아파트)번 버스를 이용, 미아리고개(아리랑아트홀) 정류장에 내려 도보 2분.

**지하철 Subway**

길음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 12분, 성신여대입구역 7번 출구로 나와 도보 11분.

# 아리랑고개

????




아리랑 고개 확장 당시의 모습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아리랑고개는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넘던 고개였고, 눈물을 흘리며 걷던 고개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아리랑고개가 많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 민족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아리랑고개는 돈암 사거리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동소문동, 동쪽으로 동선동을 지나 돈암동,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시장 앞까지의 도로를 일컫는다. 서울 시내의 거리 이름 가운데 길이 아닌 고개로 부르는 유일한 도로다. 춘사 나운규는  1926년에 발표한 영화 〈아리랑〉의 배경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성북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아리랑 축제를 개최해온 성북구에서는 1997년에 아리랑고개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념가로수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영화의 거리로 특화함으로써 전통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아리랑 고개 곳곳에는 아리랑 쉼터와 나운규 소공원 등의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62, 2115, 1014번 버스, 20번 마을버스를 이용, 아리랑고개,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정류장에 하차.





# 삼선평과 삼선동




1978년 4월 3일「경향신문」초창기 스포츠의 요람지였던 삼선평

삼천평,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혜화문을 나오면 성북천을 끼고 넓게 펼쳐진 땅을 사람들은 '넓다'는 의미에서 삼천평이라 불렀다. 현재 널리 쓰이는 '삼선'이란 이름은 조선 후기에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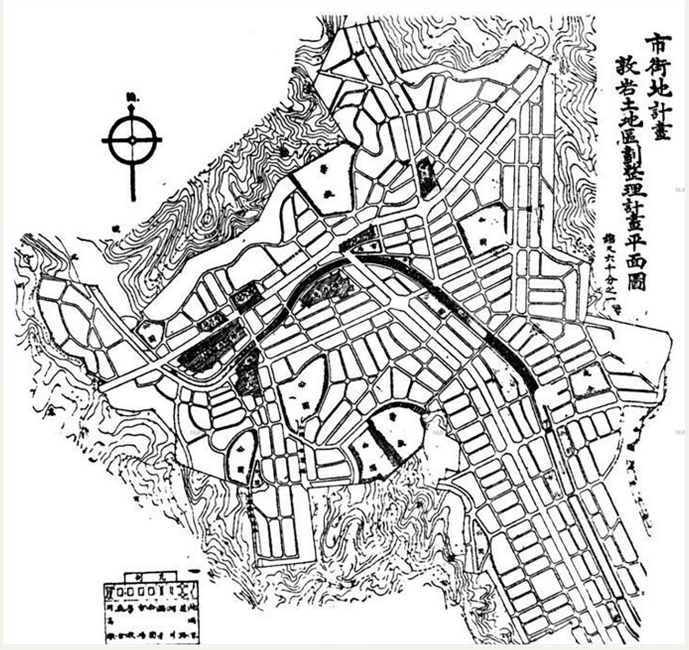
혜화문은 동북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었고,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한 혜화문 밖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한 삼선평이라는 넓은 땅이 있어 군사 훈련에도 적합했다. 군사시설인 어영청의 북둔이 이곳에 설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북둔 옆에 위치한 삼선평은 을지로 6가에 있던 훈련원 등과 함께 군사들의 열무장(鍊武場)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오며 넓은 들판은 사람들에게 군사 훈련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바로 체육이었다. 근대 국민국가시대에 접어들며 '국민'의 체력이 곧 국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스포츠의 국제대회 성적 역시 국력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기 시작했다.

축구, 야구 등 소위 대중 스포츠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되었고,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기 위한 장소를 찾았다. 지금 군대에서도 연병장이 군인들의 축구나 족구의 장소로 활용되듯, 당시에도 군사훈련장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훈련원과 삼선평은 때로는 축구장으로, 때로는 야구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줄다리기 등 최근의 운동회에서 도 즐겨하는 놀이도 행하여졌으며, 골프장도 들어선 곳도 삼선평이었다. 삼선평에서 벌어진 축구 등의 운동은 드물지 않게 달밤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1978년「경향신문」에서는 '얘기로 풀어보는 한국 스포츠 80년'을 연재에서는 삼선평을 '근대스포츠의 요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혜화로터리를 지나 낮은 고개를 넘어오면 한성대입구 사거리가 나온다. 지금은 길 옆으로 건물들이 가득차 '근대 스포츠의 요람' 삼선평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건물 하나하나를 천천히 지워가다 보면 금새 넓은 들판을 상상할 수 있다. 그곳에서 상투를 틀고 짚신을 신고 축구, 야구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배워가며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이곳 삼선동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 사업 - 돈암지구




돈암토지구획정리계획평면도

돈암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리 많지 않다. 성신여대 앞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하나로 거리-를 떠올리면 그나마 이 지역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이승만이 해방 이후 처음 자리를 잡았던 돈암장을 안다면, 지역은 물론 역사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돈암동을 포함한 일제 강점기 돈암지구(돈암, 동선, 삼선)는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서울 도시 개발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경성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당시 경성부의 면적은 36.18㎢ 로 조선시대 한양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결국 일제는 1936년 2월 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경성부로 편입시킨다. 이때 지금의 성북구 지역 중 성북리, 돈암리, 안암리, 종암리, 정릉리의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된다. 이외에도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제기리, 용두리, 회기리, 이문리, 휘경리 등도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의 면적은 136㎢ 으로 단숨에 약 3.7배 가까이 확장된다.

일제는 경성부의 면적 확장과 더불어 같은 해 3월 확장 지역에 시가지계획 구역을 고시하고, 1936년 12월 26일에는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52,266,900㎡(약 1,580만평)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확정, 발표했다. 이중 돈암지구는 영등포와 함께 1차년도 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돈암지구가 선택된 이유는 '교외지에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곳'이기 때문이었다. 1차년도 사업이니만큼 작업 진행도 빨랐다. 1939년 봄에는 이미 돈암지구의 70%에 달하는 면적에서 정지(정지)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여파가 컸다.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처음이니만큼 시행 착오도 있었고 판매를 위한 토지가격 책정 등에 있어 싸게 판매하려는 경성부와, 비싸게 팔고 싶은 지주 사이의 갈등도 있었다. 결국 갈등은 경성부의 승리로 끝나 돈암지구의 토지가격은 시가보다 싸게 책정되었다.

토지가격이 결정되자 경성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입간판, 포스터, 판플렛,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구획정리 전람회 및 전문가 강연회까지 개최했다. 그 결과 돈암지구의 토지는 비교적 빨리 판매되었다. 특히 같은 1차년도 사업 계획지였던 영등포지구에 비해서도 돈암지구의 필지 판매는 빨랐다. 1940년 12월 말에는 정지 작업이 96% 이상 진행되어 있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향상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하루 두 차례 다니는 시외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1935년에는 돈암동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추진된 사업은 바로 전차 개통 사업이었다. 경성부는 돈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전차를 준공하기 위해 1938년 3월 착공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이 계획은 늦춰져 1939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1941년에 들어서야 돈암동까지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종점은 지금의 성신여대 태극당 부근).

이로서 서울시 최초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인 돈암지구 사업은 거의 유일하게 일제 강점기내에 마무리 되었다. 1960년대와 60년대 돈암지구 지도를 보면 1930년대 후반에 제작된 토지구획정리계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 후 시가지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제 3권역

# 왕후의 무덤을 품고 있는데서 유래된 정릉동





정릉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 즉 정릉을 품고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그 이전의 지명은 사을한리(沙乙閑里)였는데 이는 우리말의 '살한이'를 한자 음으로 옮긴 것으로 사을한리는 다시 사아리(沙阿里)로 약칭되기도 했지만, 신덕왕후의 정릉이 이곳에 옮겨지면서 '능말', 즉 능동(陵洞)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을 겪으면서 이곳의 명칭은 다른 마을처럼 여러 번 바뀌었다. 숭신방 정릉계, 숭신방 정릉동, 숭신면, 숭인면 정릉리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현재의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정릉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의 일이다.

정릉동은 서울의 북쪽 북한산 연봉 밑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성북구 소재의 동 중에서도 가장 넓으나 지역이 북한산 남쪽 산비탈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거가 가능한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그래서인지 정릉의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세분화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부근의 마을은 지금도 능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물이 맑은 마을이라는 뜻의 청수동, 고려 때 귀양 온 손씨가 많이 살았다는 손가정, 동구(洞口)에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처럼 서 있다 하여 문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 문바위골, 배 모양을 하고 있어 배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 배바위골(선암동) 등이 아직 옛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송계동천(松溪洞天)'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겨 전한 데서 이름을 얻은 송계동도 있다.

이 외에도 사라진 옛 모습을 떠올려 보자면, 정릉1동에는 예전에 빡빡산이라 부르던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이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돌이 많은 곳이었으며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인 정릉1동의 16번지 일대는 호박밭이 많은 구릉지대였고, 배밭골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에 배밭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배밭은 지금의 평창동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정릉1동 16번지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평안북도 철산의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정부는 이곳에 영국식의 철판으로 된 집을 열 채 정도 지어 피난민들을 수용하였다. 이 일대는 일제가 집터를 갈라놓았다가 광복 후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원조로 집을 지어 개인에게 팔았던 지역이다. 그 당시 자재는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고 시멘트는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집 짓는 데 사용된 모래는 그곳에 있던 것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집의 형태는 그 당시 정부의 부흥부(復興部)를 주축으로 하여 안암동 5가(개운사 일대)에 7채의 집을 시범적으로 지었던 것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산 72번지 일대는 모두 판자집이었다.

예전에는 정릉동 16번지 안에 택시회사가 6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또 배바윗골 근처에는 지금까지도 무속인들이 천제당 등을 짓고 모여 살고 있다. 1960년대 초 뚝섬이 홍수로 침수되었을 때 정부는 그곳 주민을 지금의 정릉3동으로 이주시켰다. 지금의 길음시장 뒤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정릉4동 삼덕단지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전사한 군인들을 묻기 위해 묘지로 쓰다가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여 지금의 동작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정릉1동 16번지 안에는 미군부대의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당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남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먹기도 하였다.

정릉동 사람들은 정릉동 여신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전설을 믿으며 매해 산신제를 지낸다. 만약 정릉을 떠나면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여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릉의 여신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곳은 정릉3동 주민을 주축으로 매년 음력 10월 배바윗골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 정릉

정릉(貞陵)[사적 제 2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7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의 능이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山役)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나와 현재 중구 정동의 덕수궁 북서쪽에 능을 조성하였다. 신덕왕후는 황해도 곡산부 강윤성(康允成)의 딸로 이성계와 만나 2남 1녀를 낳았다. 태조 원년(1392)에 현비로 책봉되었으며, 태조 7년(1398) 8월 13일 판내시부사 이득분(李得芬)의 집에서 승하하였다.

사랑하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너무 상심하여 슬퍼하다가 능터(陵地)를 친히 찾았다. 태조는 공신들의 주장대로 국모를 높이는 뜻에서 공신수릉제(功臣守陵制)를 채용하고 능역을 황화방 북원(皇華坊 北原, 현 정동)에 조영하였다. 그 동편에는 정릉의 원찰(願刹)로서 170여간의 흥천사(興天寺)를 세운 다음 자주 행행(行幸)하였고 흥천사에서 신덕왕후의 재(齋)를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 이 흥천사 종은 후일 종루(鐘樓)에 걸려 서울 장안의 시각을 알리기도 하였다. 현재는 덕수궁에 옮겨져 있다.

그러나 정릉은 태종이 즉위하면서 푸대접 받게 되었다. 이방원(태종)은 세자의 자리를 놓고 신덕왕후, 정도전 등과 정치적으로 갈등했다. 결국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태조가 승하한 후 9개월 만인 태종 9년(1409)에 정릉을 덕수궁 부근에서 동소문밖 사을한리(沙乙閑里 : 현 정릉)으로 이장한다.

태종은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태조와 자신의 친어머니 신의왕후만을 함께 모시고, 신덕왕후의 신위는 모시지 않았으며, 그녀를 후궁의 지위로 격하시켜 버렸다. 이후 정릉은 백년간 왕후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주인 없는 무덤에 불과했고, 무덤의 존재마저 잊혔다가 200여년이 지난 선조 때에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이장축문(移葬祝文)을 근거로 하여 찾았다. 그 후로도 한식절(寒食節)에만 제사를 받드는 등 소홀히 다루어지다가 현종 10년에(1669) 다시 정릉의 상설을 복구하고 종묘에 배향을 결정하게 되어 그 한을 풀게 되었다. 이 때 정릉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정릉 일대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이를 '세원지우(洗寃之雨)'라고 불렀다. '세원지우'란 신덕왕후의 원을 씻어주는 비라는 뜻이다.

정릉은  다른 능들과는 달리 홍살문이 'ㄱ자'로 꺾여 배치되어 있다. 아마도 처음 이곳으로 이장될 당시에는 홍살문이 없었다가, 훗날 현종이 이곳을 복구할 때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이장될 당시 후궁의 능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정릉의 곳곳에서는 다른 능에 비해서 빈약한 부분들이 있다.

봉분 위쪽에는, 조선시대 능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석물인 장명등과 혼유석이 긴 세월 동안의 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장명등이 고려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능의 양식이 고려시대를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장될 당시 태종이 봉분을 깎고 석물을 매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시기의 다른 능에서 발견되는 병풍석과 난간석, 그리고 무인석이 빠져 있어 허술한 모습을 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014, 2115, 162번 버스를 이용, 정릉입구(구아리랑시장)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0분. 1114, 1213, 7211, 153, 171, 8153번 버스를 이용, 정릉2동 주민센터 정류장에 내려 도보 13분. 1113, 1114, 1164, 1213, 7211, 110A(간선), 143(간선), 153(간선), 171(간선), 8153(간선)번 버스를 이용, 숭덕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13분. 1162번 버스를 이용, 산장빌라에서 내려 도보 6분.

# 경국사

경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눈오는 날의 경국사 풍경. 서울임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운치있는 풍경이다.

『경국사 사적기』에 의하면 경국사는 670년 전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자정율사(慈淨律師)가 창건하여 청암사(靑巖寺)하였다고 한다. 절이 위치한 곳이 청봉(靑峰)아래 있었으므로 청암사라 붙인 것이다. 자정율사는 충숙왕으로부터 국존(國尊)으로 존경받았던 고려 후기의 스님이다. 창건 이후 1330년경에 무기(無奇)스님이 머물면서 천태종의 교풍을 크게 떨쳤고, 충혜왕 1년(1331)에는 부정축재로 거금을 모은 권신 채홍철(蔡洪哲)이 선방(禪房)을 증축하여 선승(禪僧)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하였다. 고려 말인 1352년에는 금강산 법기도장(法紀道場)을 참배하고 남하한 인도승 지공(指空)이 절에 머물렀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누르고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퇴락하였다. 그러다가 인종 1년(1545)에 왕실의 도움으로 중건되고 이듬해에는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 절이 중수되자 성대한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발원하는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경국사 사적기』에는 문정왕후의 중창 이후 '부처님의 가호로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암사를 경국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 현종 10년(1669)에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복원하면서 부근의 약사사를 봉국사로 중창·개칭하고, 흥천사와 함께 정릉의 원찰(願刹)로 삼을 때, 이 청암사도 원찰로 지정되어 경국사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절은 숙종 때 연화 승성스님, 영조 때 난암 · 의눌스님이 중수(重修)하였으며, 철종 때는 예봉 · 평신스님이 법당을 다시 세웠다. 고종 1년(1864)에는 고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재를 열기도 하였다. 고종 5년(1868)에는 칠성각과 산신각을 새로 짓고 호국대법회를 열었는데 이 때 왕실에서 범종을 보시(布施)하였다. 일제 때인 1921년부터는 단청(丹靑)과 탱화 조성에 일가를 이루었던 보경(寶慶:1890~1979)스님이 60년간 주지로 머물면서 절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갔다. 보경스님은 교학과 선지(禪智)를 두루 익히고 계율에도 철저하여 승가의 귀감이 되었고,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서 민족의 정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문화의 전승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통 불상조각과 불화화법을 익혀 대가를 이루었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보경스님의 인격과 태도에 감화되어 몇 차례나 찾아왔고, 1953년 닉슨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도 이 절을 찾아왔다. 그 후 지관(智冠)스님이 1979년에 주지를 맡아 활발한 포교활동과 절의 내실을 다졌다. 이처럼 경국사는 고승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안민을 위한 기도 도량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0A, 110B, 143, 162, 1020, 1113번 버스, 06번 마을버스를 이용, 정릉4동주민센터, 경국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4분.

# 봉국사

봉국사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는 정릉의 원찰(願刹)로 정릉길 옆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이 절은 고려말 공민왕 3년(1354)에 나옹대사(懶翁大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는 설과, 조선 초 태조 4년(1395) 당시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에 의해 창건된 호국 사찰로 약사사(藥師寺)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다. 조선 후기 현종 10년(1669)에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정릉을 수봉(修封)하고 태묘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정릉의 사초(沙草)를 새로 하는 동시에 정자각(丁字閣), 안향청(安香廳), 전례청(典禮聽) 등을 새로 세우면서 이 절을 원찰(願刹)로 하였고, 이때 나라를 받든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봉국사로 고쳤다.

그러나 이후의 절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으며, 조선말 임오군란(1882) 때 소실된 것을 한계(漢溪)·덕운(德雲) 두 스님이 힘을 모아 이듬해에 중건하였다. 그 후 1898년에 명부전을 중건하고, 1913년에는 칠성각을 중건하였다. 1979년 10월에는 절 입구에 일음루(一音樓)를 건립하였고, 1994년에는 안심당을 지어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신도들의 신행처로 사용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0B, 153, 171, 1114, 1213, 7211번 버스를 이용, 봉국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3분.

# 내원사

내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151




내원사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찰 가운데 하나로, 정릉 골짜기를 지나 목멱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내원사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은 김정호가 제작한 「수선전도(首善全圖)」와 철종 10년(1859)에 제작된 『백의대사불도(白衣大士佛圖)』라는 목판이 유일하다.

수선전도에는 현재 내원사가 자리한 곳과 같은 위치에 내원암이 표시되어 있고, 『백의대사불도(白衣大士佛圖)』목판에는 삼각산내원암(三角山內院庵)이라는 기록이 있어 19세기 전반만 해도 법등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내원사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지 의문이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0A, 110B, 1020번 버스를 이용, 정릉북한산국립공원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북한산국립공원 정릉매표소에서 내원사까지 1Km.



# 영취사

영취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61-222



전국의 사찰에 대해 기록한 옛 문헌에 영취사에 얽힌 설화가 나온다. 신라 신문왕 때 재상 충원공이 온천에서 목욕하고 성으로 돌아오며 목격한 일이다. 한 사람이 매를 놓아서 꿩을 쫓게 하자, 꿩은 날아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방울 소리를 듣고 찾다가 관청 북쪽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은 우물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물의 물이 마치 핏빛처럼 보이는 것이다. 꿩은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고, 매도 꿩을 측은하게 여겨서인지 감히 잡지 않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긴 충원공은 감동하여 땅의 기운을 점쳐 보고 절을 세울만한 곳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그곳에 절을 세웠는데, 바로 지금의 영취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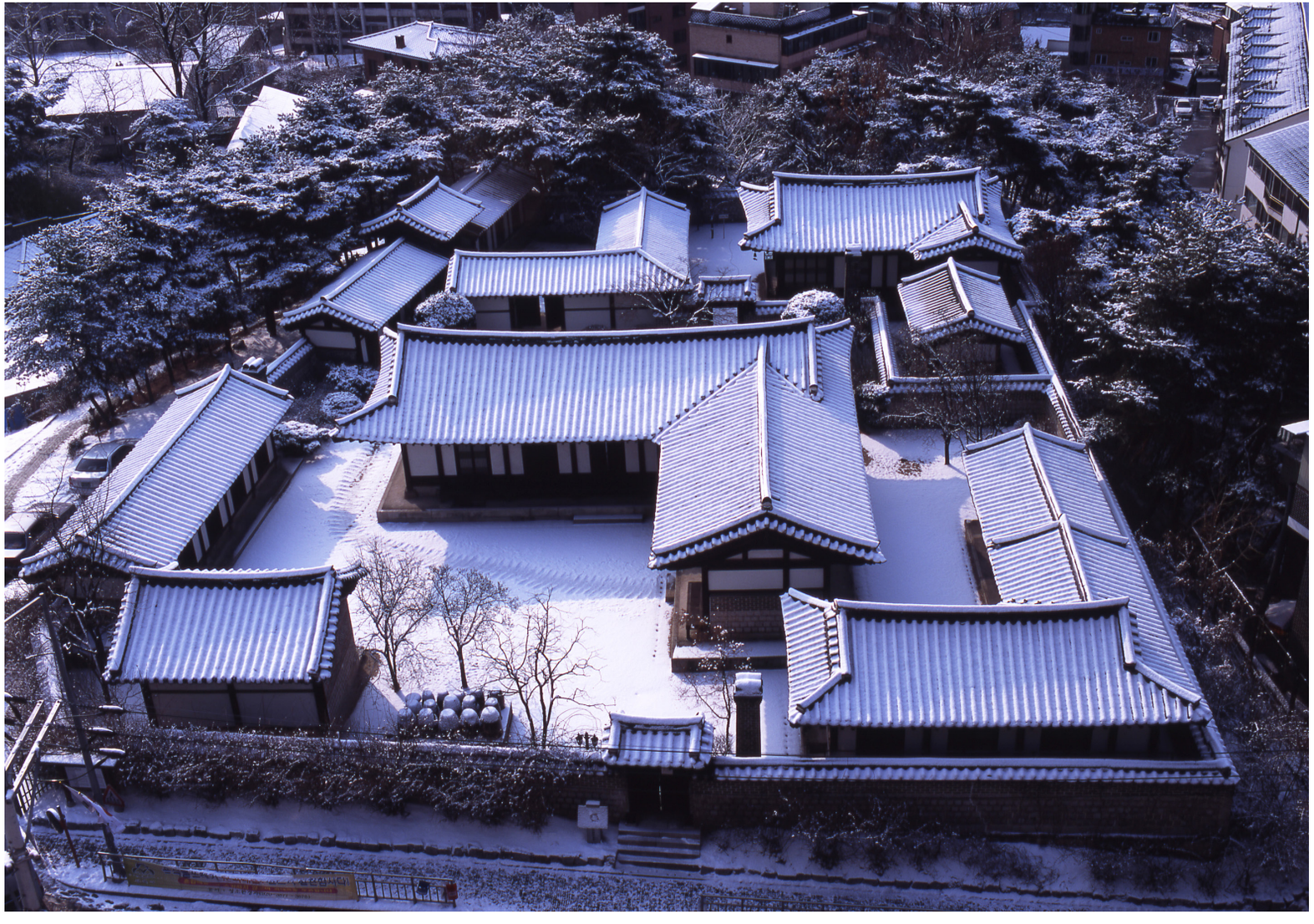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0A, 110B, 1020번 버스를 이용, 정릉북한산국립공원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 장교동 한규설대감가

장교동 한규설대감가(서울민속자료 제 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9길 64



1890년경 지어진 이곳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조선시대 한성판윤에 참정대신 등을 지낸 한규설 대감의 집으로, 중구 장교동에 있던 고택을 1980년 도시 재개발로 멸실될 위기에 처하자 이전한 것이다.

한규설 대감의 고택은 60칸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 상류층 저택이다. 대문은 주인의 지체를 상징하는 솟을대문이며 가마를 타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이를 지나면 이내 두 개의 중문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채로, 다른 하나는 안채로 향한다. 사랑채의 절정은 사분합문(4개로 분할된 문)이다. 이를 들어 열면 사통팔달(바람 길)이 생긴다. 동시에 마당의 나무와 담장, 안채의 지붕 선을 살며시 담아낸 액자가 만들어진다. 전통 건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차경借景(외부 경치를 내부로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표현)의 묘미인 것이다. 안채는 대문으로부터 먼 북쪽에 자리 잡았다. 안방, 대청 그리고 건넌방으로 이뤄졌고 뒤쪽으로 부엌과 찬방이 있다. 과거 가족들이 대소사를 치렀던 넓은 명적의 방과 마당은 현재 여러 행사의 무대로서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별채에 사당까지 갖췄고, 채별로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사당마당이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166번 버스를 이용, 국민대후문 정류장에 내려 도보 3분.



# 제 4권역

##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유래된 종암동



종암동은 조선 초부터 한성부에 속했는데, 조선 말 고종 4년(1867년)에 발간된『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동부 숭신방 종암동계로 되어있고, 갑오개혁 때에는 한성부 동서 인창방 동문외계 대종암, 소종암으로 칭하였다. 그러던 것이 한일합방 후인 1911년 4월, 일제에 의해 경성부 숭신면 대종암, 소종암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914년 경기도 숭인면으로 개편되었고, 다시 1936년 4월 대종암리와 소종암리가 종암리로 통합되어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때, 동명을 일본식 동명인 경성부 종암정으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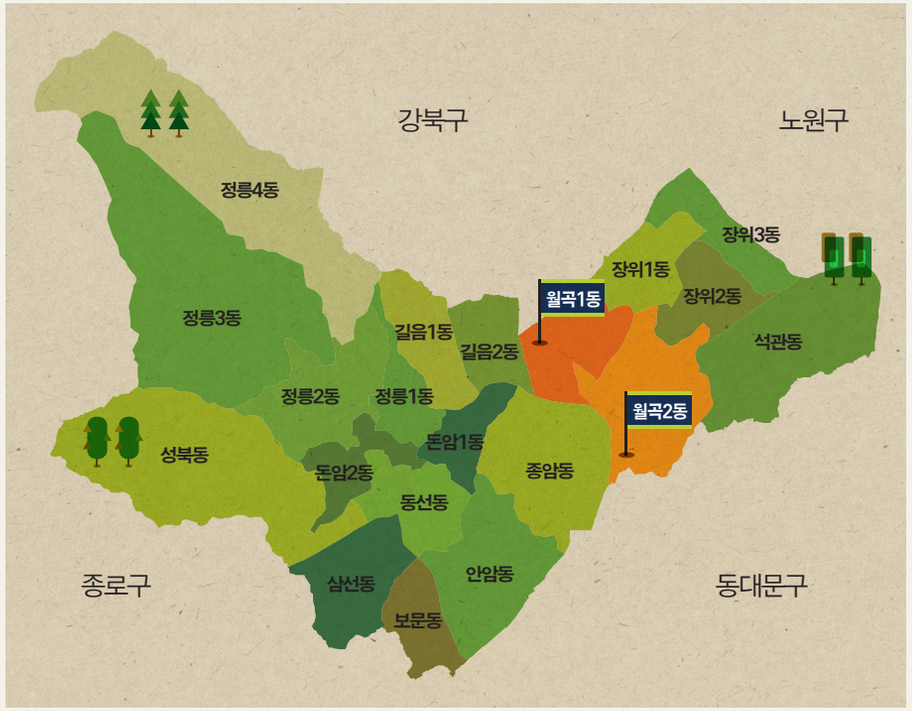
그러다가 다시 1943년 6월 구제 실시 때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광복 후 1946년 10월에 일본식 이름인 종암정 대신 종암동으로 바뀌었고 다시 1949년 8월 15일 성북구의 신설로 성북구에 속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1978년 10월 종암동 일부가 하월곡동으로 편입되면서 동이 축소되기도 했으며, 현재 동암동은 종암 1동과 종암 2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종암 1동은 종암로 동쪽 일대 종암동 지역의 동장관할구역 명칭이다. 이 동은 1936년 4월 경성부에 편입된 후 종암정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광복 후 1946년 10월 종암동회로 바뀌었다. 1955년 4월부터는 종암동 사무소로 칭하게 되었는데, 1970년 5월 '동장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종암동은 종암1동과 종암2동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종암동은 야산의 능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동 전체 지역이 산비탈에 주택가를 형성하는 반월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종암1동은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임야지역으로써 다른 어느 동네보다 공기가 맑고 신선하다. 이 지역의 야산은 원래 울창한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쉼터로 이용되어 왔고, 산에서 나오는 낙엽이나 나무의 잔가지들을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자유를 찾아 남하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 산비탈에 정착하면서 나무들을 마구 베었다. 또한 한국전쟁 때 미아리와 종암동을 잇는 국군의 서울방어 저지선이 바로 이 능선이었으므로 포격전에 의해 많은 나무가 불타서 한때는 민둥산이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말부터 조림 및 식수 사업을 실시해 지금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종암동 동명은 고려대학교 뒷산에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이를 한자로 '종암(또는 고암)'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종암1동의 옛 이름은 '안말'인데 비교적 부촌이었다고 한다. 경주 김씨와 경주 정씨의 집성촌이기도 했는데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 한 동리에 살면서도 서로 통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안말은 숭례초등학교 앞 쪽을 큰 해창, 뒤쪽을 작은 해창이라 칭했다. 여기서 해창이란 이 부근에 조선 중기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와 남편 해창위 오태주의 묘가 있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종암2동은 종암로 서쪽 종암동 지역의 동장관할구역 명칭으로, 1970년 5월 설치되었다. 전에는 모랫말 또는 모랫골이라고 칭했다. 그 이유는 월곡동과 경계가 되는 정릉천의 물이 맑아 빨래터로 사용되었는데,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쌓여 주변이 언제나 모래밭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의 모래는 소금기가 전혀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모래여서 하수구관이나 전봇대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유래된 월곡동




월곡동은 지금의 하월곡동에 있는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그 산 근방에 있는 마을을 다릿골이라고 부르는데서 유래했다. 그리고 다릿굴 중 위쪽에 있는 곳을 '웃다릿굴', 아래쪽에 있는 곳을 '아랫다릿굴'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상월곡동과 하월곡동이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는 주막이 밀집해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소 장수들이 달밤에 이곳에 도착하여 숙박을 하고 아직 달이 채 지지 않은 새벽 무렵에 일어나 소의 가격을 흥정했기에 월곡이라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던 간에 이 지명 이야기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월곡동은 서울로 편입된 역사가 짧은 경기도권의 지역이었다. 동대문 밖을 나와 성북역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런 월곡동에 주막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 근방은 소나무 숲이 수려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더 잦았다. 하지만 지금은 소나무 숲도, 주막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원선 철도의 부설로 인해 이곳 주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로 편입되기 전 상월곡동에 살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서울로 편입된 후에는,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 농지로 사용되던 곳이 점점 주택가로 변했다. 서울의 외곽이었던 이곳에는 서울 내의 철거민들이 몰려들어 살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재개발되어 주택단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율곡, 모래마을, 밤골, 배나무골 모두 과거 월곡동에 있던 마을 이름들이다. 마을 이름들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과거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특히 현재 하월곡동에 있는 모래마을은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이곳에 쌓여 모래마을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곳은 또한 물이 맑아 콩나물이 유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 염색공장, 피혁공장, 작은 상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모습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월곡동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다.

# 마을 뒤 장위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유래된 장위동



장위동의 명칭은 조선시대 초에도 장위리라 불러 온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명신(名臣)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되기도 하고, 마을 뒤에 장위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어서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장위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1396년(태조5년)에 도성 및 성저를 5부 52방으로 획정할 때 동부에 소속되었으며, 조선 후기 1751년(영조 27년)에 간행된 『어제수성윤음』「도성삼군문분계총록」에 동부 인창방 장위리계로 되어 있다. 장위동은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방이 강행된 후인 1911년에 한성부를 개칭한 경성부 인창면에 편입되었으며, 다시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부군을 자의로 통폐합할 때 장위동은 성 외(外)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에 편입되었다. 장위동이 다시 서울에 들어온 것은 1949년 8월 성북구가 분리 · 신설될 때 이다. 그와 동시에 장위동은 성북구 관할 아래 놓였고 같은 해 성북구 내에 설치된 숭인 출장소 소속이 되었다. 1952년부터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석관동과 합쳐서 장석동이라 칭하며 동 행정을 함께 보았는데, 다시 장위동과 석관동으로 분리된 것은 1963년의 일이다. 1973년 7월에는 숭인 출장소가 폐지되면서 장위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10월 1, 2동으로 분동되고, 1977년에 인구증가에 따라 3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 장위동 지역은 웃말, 아래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등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것으로, 웃말은 이 지역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다. 아랫말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간대마을(간대말)은 이 지역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활량리는 한량리의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때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 ‘돌곶이’ 마을에서 유래된 석관동



석관동의 이름은 마을 동쪽에 있는 천장산(天藏山)의 지맥이 검정 돌을 꼬치에 꿰어놓은 것 같다고 하여 돌곶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이 마을은 돌곶이라 부르다가 조선왕조 20대 왕인 경종의 능인 의릉(懿陵)이 이곳에 안치된 이후 돌곶이에 능(陵)자를 붙여 ‘돌곶이 능말(마을)'이라고 불렀고, 돌곶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서 ‘석관(石串)’ 이라는 동명이 되었다.

조선시대 석관동은 장위동과 함께 한성부에 속해 있었으며, 의릉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천장산 쪽으로 집단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지금의 주택가인 1, 2동은 원래 벌판이었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살았다. 또한 물색이 좋고 살기가 좋아서 산 밑은 전곡과 호박이 잘 되었다고 전해진다. 1960년 이후부터 인구 집중 현상에 따라 농업지대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



# 의릉

의릉(사적 제20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의릉은 조선 후기 경종(景宗)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魚氏)의 능이다. 의릉이 위치한 곳은 천장산(天藏山) 밑으로서 옛 지명은 양주 중량포(中梁浦)이다. 경종은 숙종의 장남인데, 장희빈으로 더 잘 알려진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씨(張氏)의 소생으로 이름은 균, 자는 휘서(輝瑞)이다. 숙종 14년(1688)에 태어나서 세 살 때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숙종 43년(1717) 8월에 청정(聽政)을 대리하다가 3년 후에 숙종이 승하하자 경희궁에서 즉위하였다. 즉위 4년만인 1724년 경종이 승하하자 의릉을 조영하였고, 6년 뒤 계비 선의왕후가 승하하여 경종의 능 앞쪽에 선의왕후의 능을 만들었다. 이는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에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형식으로 ‘동원상하봉’이라고 한다. 이런 형식은 조선 왕릉에서는 매우 드물다. 경종의 능침에만 곡장을 둘렀으며, 왕릉과 왕후릉 모두 혼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물을 별도로 배치한 모양으로, 능묘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이다.

의릉의 장명등은 건축 양식에 있어 의미가 있다. 장명등의 지붕은 4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숙종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건원릉부터 나타난 8각등에 비해 한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준다. 왕후릉 역시 방풍석 없이 난간석 만으로 봉분을 둘러쌌으며, 석물들의 배치도 같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47, 261, 120, 1222번 버스를 이용, 의릉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6분.

**지하철 Subway**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돌곶이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고려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구 중앙정보부 강당

의릉 내 구 중앙정보부 강당(등록문화재 제 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의릉 안에 있는 이 건물은 1962년도에 신축된 2층 건물로서, 강당 연면적 466.28㎡와 1972년도에 신축된 회의실 연면적 234.7㎡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1972년 7월 4일 당시 이곳에서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이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장소로서, 냉전시대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남긴 현장이다.

의릉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한때 철거가 예정되기도 하였으나, 남북 간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한국현대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중앙정보부 건물 내 강당이 2004년 9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구 중앙정보부 건물 내부는 2008년 건물 내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개했으나 현재는 아쉽게도 건물 내부는 볼 수 없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47, 261, 120, 1222번 버스를 이용, 의릉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6분.

**지하철 Subway**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돌곶이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고려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장위동 김진흥가

장위동 김진흥가(민속자료 제 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76-6



이 집은 조선 말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와 부마 남령위 윤의선의 집이다. 오늘날에는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김진흥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부마의 이름을 따서 남령궁이라고 불렸고, 사랑채에는 남령궁이라는 현판이 있었다고 한다.

김진흥가는 사랑채 대청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량문에 의하면 을축년에 건축하였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1865년과 1925년에 해당된다. 민속자료로 지정할 당시의 조사자는 이를 1925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았다.

이 주택의 건물 평면은 처음에 안채를 『'ㅁ자'』로 앉히고 거기에 사랑채를 안채의 대청과 나란히 『'一자'』형으로 배치하는 『'9자형(九字型)'』을 기초로 했으나 지금은 『'ㅁ자』를 두 개 겹친 『'쌍구자(雙口字)'』모양으로 되어 있다. 『'쌍구자'』의 서쪽은 큰 집을 배치하고 동쪽은 뒤쪽으로 작은 집, 앞쪽으로는 사랑채를 앉히고 있다. 사랑채 뒤에는 다시 안채 모양의 집이 있는데 건넌방 쪽으로 행랑방들을 덧붙여서 사랑 뒷마당을 『'ㅁ자형'』으로 만들고 있다.

안채의 안방 서쪽에는 큰 3간 크기의 정자가 있는데 〈산호벽루(珊瑚碧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안채 뒤에는 뒤뜰이 시설되고 문간채 앞에는 바깥마당이 있다. 안채는 굽은 형이고 사랑채는 『'一 자형'』으로 방을 배열하였다. 안방은 『'ㄱ자'』로 꺾고 마당 내부 구석의 각 방들을 들쑥날쑥 처리하여 큰 공간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선의 방향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하였다. 특히 사랑채 앞의 장대석 2단 석축과 후원의 석축은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찾아 오는 길**

**버스 Bus**

147, 261번 버스를 이용, 하나은행장위동지점 혹은 장위동원천주유소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4분. 14번 마을버스를 이용, 장위1동새마을금고 혹은 국민은행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6분.

**지하철 Subway**

돌곶이역 3번 출구로 나와 도보 12분.